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 한인뉴스

2013

11



VOL. 209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 PT. INWHA INDONESIA

ENGINEERING & CONSTRUCTION

PT. Inwha Indonesia 는 20여년간 인도네시아에서 Power Plant, Oil & Gas, Piping, Petro Chemical 분야에 종사해 온 건설한 기업입니다.



이제 PT. Inwha Indonesia 가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 <모집 분야>

- 기계 설치 (Turbine Boiler, Steel Structure, Piping, Storage Tank)
- 토목 / 건축 / 전기 / 공무
- 부동산 개발사업 부문
- 공장장
- 현장 소장

#### <자격 조건>

- 언어 : 인니어 ,영어 회화 가능자
- 컴퓨터 활용 ( 엑셀 / 워드 등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
- 경력 사항
  - 한국 경력: 최소 5 년
  - 인도네시아 경력 : 최소 2년

이력서 접수 : [yskim@inwha.co.id](mailto:yskim@inwha.co.id)



#### Head Office

GD. Equity Tower Lt. 22A 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SCBD) Lot. 9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 Work Shop

Jl. Raya Jakarta Serang KM. 68  
Kaw. Modern Industri Kav. 6 Cikande,  
Serang - Indonesia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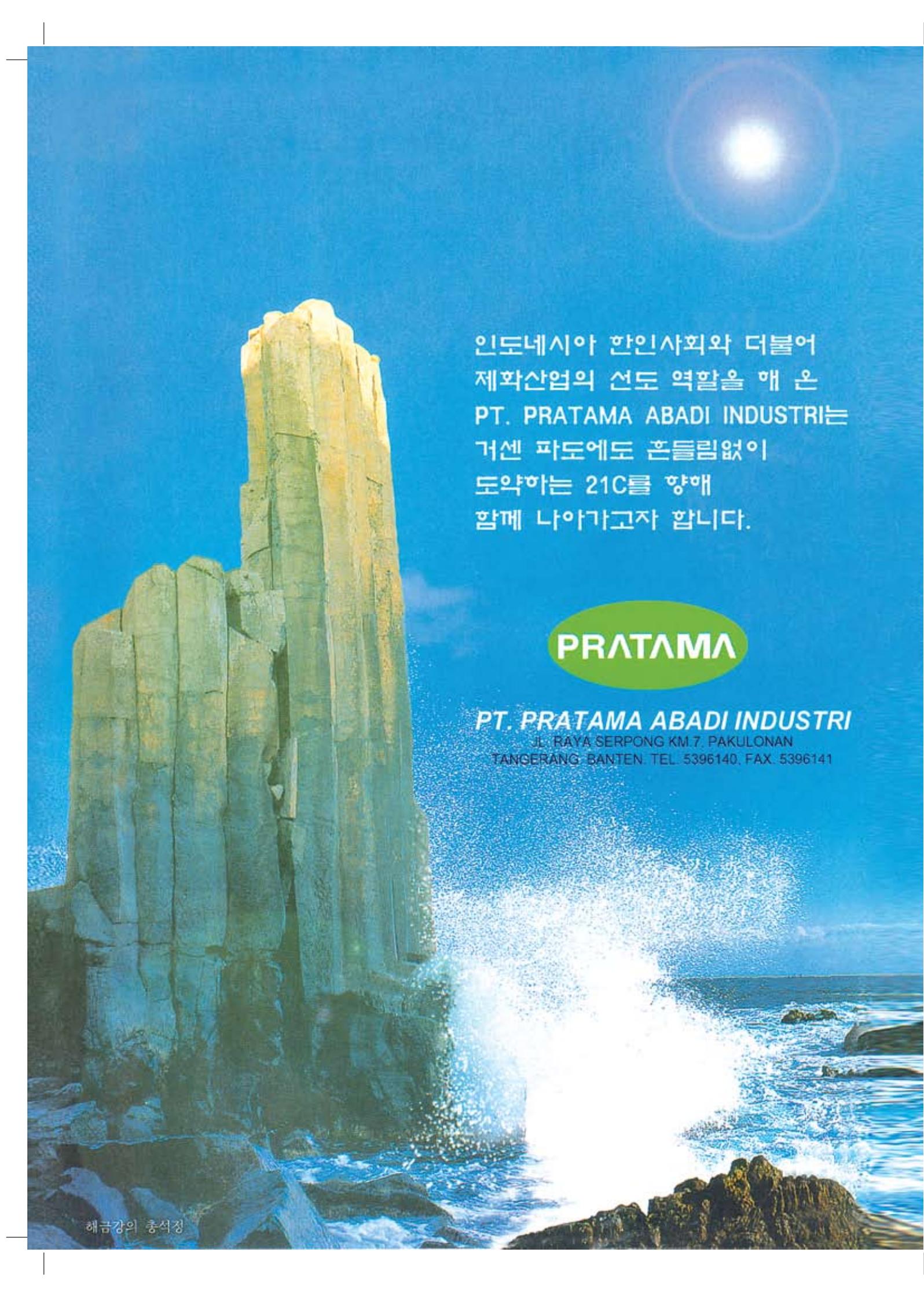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예약 및 문의 : 62-21-521-2180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선도 역할을 해 온  
PT. PRATAMA ABADI INDUSTRI는  
거센 파도에도 흔들림없이  
도약하는 21C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PRATAMA**

**PT. PRATAMA ABADI INDUSTRI**

JL. RAYA SERPONG KM.7. PAKULONAN  
TANGERANG BANTEN. TEL. 5396140. FAX. 5396141

#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인뉴스후원사로

##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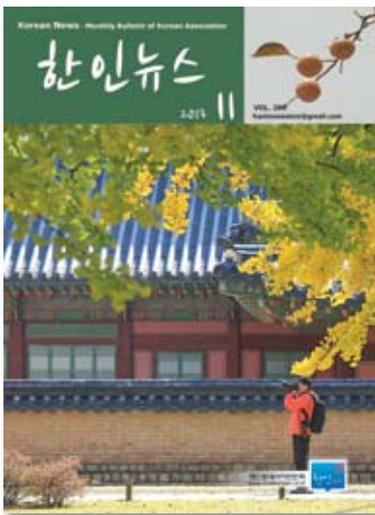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례.....6

이모저모 한인사회.....8

박근혜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민방문 특집

- 동포만찬간담회
- 박대통령 연설문
- 환영사
- 대사관 준공식
- 현대미술교류전 개막식
- 국민만찬 참석
- 한,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성명
- 대우조선해양센터 방문
- 대통령궁 기념식수
-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투자포럼
- 코참-대한상공회의소 업무 협약 결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지인들이 SNS로 전해주는 한국의 가을은  
동네마다 흔한 단풍나무 하나라도 엽서의 그림처럼  
그럴 듯 합니다.

미래로 달리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냥 흘러지는 시간들을  
머뭇게 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전국체전 재인니선수단 출정식	인도네시아약용식물(노니)<백진협>.....44
한화생명 개소식	
Banten 모노레일 건설사업	신성철 칼럼 <신성철>.....46
해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개소	
저열량탄 화력발전소 건설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48
한국산림휴양 전수	
KOICA 고�형폐기물 통합처리 시스템	문화탐방기 <한경순>.....50
땅그랑반튼 한인회	
족자 한인회	내마음의 뜰<시:박정자/그림:이태복>.....53
불쌍 공연	
한인미협전	CNN한국의 명소50.....54
한복페스티벌	
JIKS 소식	행복에세이 <서미숙>.....56
JIS 소식	
KOWIN 소식	Jalan-Jalan Jakarta/국립박물관<사공경>...58
코린도 장학재단	
CH 101한인회 방문	계약법 <이승민>.....63
롯데마트 솔로점 오픈	
풍경과 사람 <엄종한>	화 소 도.....68
인 사 모 <변해철교수와와의 인터뷰>	
	11월의 영화 추천작.....74
노후, 특급조언 .....42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경제부흥과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 열 것

10월 11일 상그릴라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동포 만찬간담회' 개최



## 두나라가 파트너 국가가 되기까지 우리 동포사회가 큰역할담당

인도네시아를 국민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저녁 자카르타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도네시아지역 우리 동포 350여명과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수교 이래 40년간 한인사회가 양국관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40주년이 되는 해”라며 “두 나라가 파트너 국가가 되기까지 우리 동포사회가 큰 역할을 해왔으며 그동안 땀흘려 쌓아온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 정부도 더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풍부한 자원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이다.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앞으로 협력분야를 크게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CEPA 협정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추진중인 CEPA(포

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체결되면 동포 여러분과 진출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동포사회는 진출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에 따른 관심도 각별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와 동포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다른 기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현재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외형적 양적 성장이 아닌 개개인의 행복을 목표로 삼고 국민 한 사람의 창의력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융성을 이뤄내며 남북이 공동발전의 미래를 꿈꾸는 한반도 평화통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연내 CEPA 체결로 진출기업에 기회 열릴 것

또한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은 신발, 봉제와 같은 전통산업에서 유통, 가전, 타이어와



“정부는 동포 여러분들이 더 큰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것”



같은 고부가 가치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앞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동포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한인동포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차세대 동포들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차세대 동포에 대한 한글과 역사교육 지원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운영 가운데 하나” 하며 “한인 동포 여러분은 1970년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국제학교(JIKS)를 설립했고 당시 대통령이셨던 아버지께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금을 보내셨던 기억이 있다” 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근에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도 늘고 있다” 며 “그분들의 자녀들도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사람이

사는 섬만 6천개가 넘고 400개가 넘는 종족이 살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이다. 지난 40년간 양국관계 발전에 산 증인이신 여러분께서 앞으로 새로운 40년을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며 “정부 또한 동포 여러분들이 더 큰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다” 고 축사를 마쳤다. 이어진 동포사회 건의 순서에 이순재 코원고문은 동포 2세들에 대한 한글교육과 정체성 교육에 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조규철 수석부회장은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동포에게 현재도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복수국적 문호를 좀 더 확대해주길 건의하였고, 최석진(JIKS)교사는 한국국제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기엽 한인회장, 송은호 민주평통 아세안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박근혜대통령 인도네시아 동포간담회 연설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동포사회가 화합과 단결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진출 초기에는 어려움도 크셨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회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한국을 출발하여 발리 APEC 정상회의와 브루나이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다시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발전과 경제협력 확대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관심이 크실 것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이번이 네 번째 해외순방입니다. 순방 때마다 해외 동포 여러분을 만나 뵈면서 가슴 뿌듯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도네시아 진출만 보아도, 1960년대 후반 정글의 밀림 개발을 시작으로 80,90년대에는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진출을 확대했고, 2000년대에는 IT와 에너지, 서비스산업까지 폭넓게 진출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경제발전엔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2,100여개의 우리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100만 명이나 고용하고 있고,

우리 동포사회가 인도네시아 최대의 외국인 커뮤니티로 발전했습니다.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놀라운 발전을 이뤄내는 힘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두 나라가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발전해 오기까지 우리 동포사회가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쌓아오신 성과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께서 더 큰 발전과 성공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이고,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협력분야를 크게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국간 CEPA가 잘 체결이 되면 동포 여러분과 진출기업에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인도네시아 동포사회가 진출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국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 각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세계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민, 동포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또 다른 기회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지금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외형적, 양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국정의 목표로 삼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력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융성을 이뤄내며,  
 남북의 공동발전의 미래로 가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우리 기업들과 동포 여러분은  
 신발, 봉제와 같은 전통산업부터 유통, 가전, 철강,  
 타이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동포여러분께도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에 우리 한국도 주요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동포 여러분께서 그 주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우리 한류문화의 동남아 중심 지역입니다. 처음 드라마에서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한류는 이제 K-POP을 넘어 패션과 화장품, 헤어스타일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가 더 발전해서 음식과 의류, 전통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때 문화융성 정책도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전도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국토가 매우 넓고 우리 동포들이 넓은 지역의 전역에 진출해 있는 만큼, 찾아가는 영사서비스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일을 해결하는 노력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챙기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맞춤형 영사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세대 동포들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차세대 동포에 대한 한글과 역사 교육 지원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동포여러분께서는 1970년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국제학교를 설립하셨고,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아버지께서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원금을 보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국제학교가 대학진학률 98%를 기록할 정도로 대표적인 재외 한국인학교로 발전했는데,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경쟁력을 높이면서 2세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9개 지역에 있는 한글학교에서도 우리 한글과 문화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도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람이 사는 섬만 6천개가 넘고, 400개가 넘는 종족이 살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고 계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40년간 양국 관계발전의 산증인이신 여러분께서 앞으로 새로운 40년을 더 크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우리 동포여러분께서 더 큰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먼저 5만여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와 함께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의 뜻 깊은 해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인도네시아 국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6,7,8일 발리 APEC 정상회의, 9-10일 브루나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3국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엔 인도네시아와의 양국 정상회담차 자카르타를 국민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시고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인 국민행복을 위하여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시는 모습에 우리 한인동포 모두는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후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 6월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9월에는 러시아 G20 정상회의에 이어 한.베트남 정상회담등으로 뛰어난 외교 성과를 거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의회에서 영어 연설과 중국 칭화대에서의 중국어 인사말로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준 대통령님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이제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회중 가장 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성숙한 동포사회로서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 환영사

연초 자카르타 일원이 6년만의 대홍수로 인하여 25만명의 이재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심어 주었으며, 또한 수교4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많은 행사를 치루면서 형제처럼, 친구처럼 더욱 친근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축복받는 한인사회를 만들어 후대들에게 물려 주고자 합니다.

이 모두가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 세계 한인동포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국가로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민족으로 영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인도네시아에 2,100여 한인기업이 진출 100만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대통령님의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협력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인도네시아 사회와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사회로 진일보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5만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인도네시아 국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통령님께서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 박근혜대통령님께 드리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 건의문

### 1. 한국어 교육에 관한 문제점과 제안 및 대사관 정식지제 "교육관" 파견 요청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었고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는 지금 정교사와 준교사의 양성과 수급이 시급하며 관련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육관의 파견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 2. KOICA 해외봉사단원 대폭 증원 요청

인도네시아는 우리정부의 해외봉사단이 최초로 파견된 국가 중 하나로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기존의 낡은 국가 및 사회체계를 벗고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개혁과 선진화를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시기에 봉사단원 요원을 배 이상 확대하여 인도네시아의 필요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진출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다. 진정한 활동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해외봉사단원들이 중심이 되어야함을 덧붙여서 강조하였다.

### 3. 해외동포에 대한 세무 사찰 무차별한 시행 자체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시행 요청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한 상기업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활동하여 고국에 보

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추가로 "산업 기술학교" 설립을 건의

현재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에 35,000명 취업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도 2,100여 업체가 있는데, 고급기술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고졸 이상을 대상으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2년 과정의 기술학교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이카가 주도하여 크게 성공한 베트남의 한-베 산업기술학교를 예로 들어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기술학교설립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외교부 산하의 "재외 동포재단"을 "동포청"으로 승격시키자는 요구가 있는데 현재는 720만명의 동포지만,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해외취업 또는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청년들도 스스로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점을 감안하여 차체에 "해외동포부"나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청"이라도 설립되어야 해외동포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 했다.

이 모두를 박대통령께서는 꼼꼼히 수첩에 적으시고 "참 좋은 말씀, 고맙다.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신기업 한인회장이 박대통령께 직접 전달한 건의문의 내용)

## 신기업 한인회장의 3가지 별도 건의사안에 대한 박근혜대통령의 회신 내용

#### 1. 교육관 파견 건의

검토결과 사유가 타당하여 문교부와 외교부 간 협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육관을 파견기로 확정

#### 2. 코이카 요원 증원 요청

현 70명을 2014년 100명으로 증원하고 추후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 후 단계적 증원할 것임

#### 3. 해외동포 세무 사찰

앞으로 신중히 접근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준공식



인도네시아를 국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신청사 준공식 제막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에는 ‘준공’이라는 단어와 함께 ‘2013.9.18 대통령 박근혜’라는 친필휘호가 새겨졌다. 9월18일은 양국 수교일이다. 글귀는 박 대통령이 쓴 붓글씨의 본을 떠 새긴 것으로 박 대통령 친필이 기념석 등에 활용된 것은 처음이다.

## 한-인도네시아 현대미술 교류전 개막식



(사진=청와대)

인도네시아를 국민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자카르타 롯데쇼핑몰 특별전시장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현대미술 교류전 개막식에 참여하여 전시를 관람했다.

박 대통령은 전시회 개막에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작가, 큐레이터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환담하는 자리를 갖고 한-인도네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대통령은 환담 후 장소를 이동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축하 방식으로 준비된 “자스민(인도네시아

국화) 꽃줄 개막 커팅”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 및 전정옥 큐레이터(인도네시아 수르야 대학교 강사)의 안내로 한·인니 작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을 마쳤다.

“아빠 까바르(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교류전은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10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설치미술과 미디어 작가 19명의 작품 24점을 선보였다.

## 대통령 유도요노 대통령 주최 국민만찬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12 오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주최 국민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에는 양국 주요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유도요노 대통령의 만찬사, 애국가 연주, 박근혜 대통령의 답사, 인도네시아 국가 연주, 민속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양

국 정상간 친분과 신뢰를 구축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답사에서 “무거운 것은 함께 메고, 가벼운 것은 함께 들자”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인용하면서 지난 40년간 양국이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간 다져온 우정을 토대로 하여 공동 번영의 미래를 꽃피우는 진정한 신뢰의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 한 · 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교역액 달성,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연내 타결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 및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은행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추진 중이라면서 금년 중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활동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발리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것을 축하하고, 2013.12월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원하며 우리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자신과 각료들이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1998년 경제위기 당시의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지 않고 지켜준 것과 또한 2차 세계 경제위기 당시 3만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계속 한국에서 일하게 해 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최우선적인 경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무역 등 동반 성장을 위해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100여개의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요노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하였고,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 건설·인프라 분야의 사업에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요노 대통령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호혜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인니 마스터플랜 등에 참여하여줄 것을 희망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20년 1,000억불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였으며, 유도요노 대통령은 관계당국에 지침을 주고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협력이 국방·방산, 창조경제, 산림 휴양,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번영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금번 국빈 방문 계기 △국방협력협정, △창조문화산업에 관한 양해각서, △산림 휴양 및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인도네시아내 경제특구 해외투자 설립 및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초청했으며, 박 대통령은 발리 민주주의 포럼이 전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과 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녹색성장, 국제분쟁 사태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언어,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친선과 이해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향후 양국 관계 격상의 기본 틀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금번 공동성명은 정치·안보, 경제협력, 사회·문화 협력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북핵문제, 한·아세안 관계 등을 포함한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



# 박대통령, 대우조선해양 센터 방문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대우해양조선 현지법인 사무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한국 조선소가 설립한 동남아시아 최초의 조선 엔지니어링 센터인 대우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센터를 방문, 센터에 근무 중인 젊은 엔지니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센터는 2012년 설립됐고, 한국인 13명과 인니인 14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수주한 바 있는 잠수함 사업 브리핑도 청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측과 잠수함 3척 수출 계약(10.8억불) 체결했고, 3척 중 2척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전체 건조, 1척은 인도네시아 현지 조선소와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건조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인도네시아와 진행 중인 잠수함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방위산

업 프로젝트(10.8억불)이며 추가 수출 가능성 등 향후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방산은 특성상 기술협력을 수반하며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 관계를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한단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자카르타에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젊은 엔지니어들을 고용, 교육과 연수를 통해 관련 기술을 이전하면서 장차 현지에서 해양 생산설비 설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선 분야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기술이전을 희망한 분야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는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현지화 비율 의무규정을 강화 중인 바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현지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시 현지화 비율 충족도 용이해지고 우수한 동남아 인재 확보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 박 대통령 대통령궁 기념식수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후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자카르타 대통령궁 정원에서 각각 한 그루씩 두 그루의 나무를 기념식수 했다.

식수된 나무는 ‘AgathisDammara’로 나무에서 짜낸 기름이 약용으로 쓰이며 빨리 자라며 키가 큰 수종이라고 한다.

기념식수 행사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 정상 중 전례가 드문 행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민방문의 의미 및 한·인도네시아관계 발전을 염원하는 양국 정상차원의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식수한 기념나무는 양국 협력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뜻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산림개발 투자로 시작된 양국의 협력사, 수교 40주년이자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해’로 양국간 각별한 우의,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 발전과 도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아니 여사의 부친인 사르워 에디 위보워 장군이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로



재직시절 청와대에서 아니 여사의 모친 수나르띠 여사를 만났던 것을 회상하며, 이렇게 재회하게 된 것에 대한 반가움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위보워 대사가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 마련에 많은 기여를 한 데 이어, 사위인 유도요노 대통령과 딸인 아니 여사가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수나르띠 여사 가족의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 12일 인도네시아 독립 영웅들이 안장된 자카르타 깔리바따 영웅묘지를 찾아 헌화를 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 의장대 사열을 하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대통령,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투자포럼 참석



▲ 인도네시아를 국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후 자카르타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인도네시아 국민방문 계기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가 공동주최한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투자포럼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니 측에서는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부 장관, M S 히다얏 산업부 장관, 기따 위르야완 무역부 장관, 카에를 판중 국가경제위원(KEN) 등 인니 주요 경제 관계 핵심 인사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공식수행원, 경제사절단 등 한국측 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설을 통해 그간 양국의 경제협력은 수교 이래 40년 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이행 파트너가 되었고, 작년부턴 각료급 경제 협력 공동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양국 관계를 경제발표 목표에 걸맞게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먼저 경제협력 지평을 더욱 넓혀갈 필요성을 제기

하면서, 이를 위해 경제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창조경제를 위한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IT와 관광,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국민의 창의성이 합쳐진다면 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포스코 제철소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2, 제3의 투자 협력 사업이 끊임 없이 발굴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2020년 1천억 달러 교역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CEP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경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전통식품인 된장과 인도네시아의 전통식품인 템페(tempe)로 양국 관계를 비유하면서 양국 관계가 오랜 숙성 시간을 거친 만큼 결실을 거둘 때라고 밝혔다. “걸을 때는 국경까지, 항해할 때는 섬까지(Berjalan sampai ke batas, berlayar sampai ke pulau)”라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인용하면서 양국은 공동번영의 열매를 맺는 날까지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

## 코참-대한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체결식

지난 10월 11일, 코참은 대한상공회의소(KICC)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업무협약은 박용만 회장이 대한상의를 맡은 이래 해외상공회의소와는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다. 코참은 현재 한인기업들의 애로점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하고 한국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본 업무 협약체결로 대한상의와 본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하게 되었다. 대한상의와 코참은 2006년에 1차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KOCHAM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Korea Center, 5th Floor, Jalan 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12950, Indonesia \*Tel (62-21) 527-7539  
 \*Fax (62-21) 5296-0586 \*E-Mail kocham0909@gmail.com \*Website www.innekorean.or.id  
 \*송금처 HANA BANK \*예금주 YAYASAN ASOSIASI KOREA CQ KOCHAM \*계좌번호 (USD) 001 0071 001512

#### Kocham 소개

한인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인상공인의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서 1991년 한인회 산하 6개 상임분과 위원회 중 상공분과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1999년 확대 발족회의를 통해 회칙을 재정하고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로 공식 발족하였으며, 독자적인 단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격변하는 인도네시아 경제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년 제2차 회칙개정회의를 거쳐 조직을 재개편하여, 회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역할을 통해 한인기업의 발전과 이익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원제 경제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 한인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대변인입니다.
- 한인 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 단체입니다.
- 한인 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Kocham 회원이 되시면

- 매주 최신 업데이트된 주요 동향이 포함된 정기 레터를 받습니다.
- 매주 토요 주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원은 인도네시아 장관급 미팅에 우선적으로 초대됩니다.
- 직속 노동자문관 및 세무관세자문관의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회원분류	가입비	연회비	비고
이사회원	USD 100	USD 1,000	장관급이상 회의 우선 초대
일반회원	USD 100	USD 300	재인니한국기업
준회원	USD 100	USD 300	제한한국기업 및 재인니외국기업
특별회원	USD 100	-	정부출연단체

\*회원가입문의는 남지화 사무국장(0812-8266-485) 또는 김혜아 간사(0813-1064-9663)로 연락 바랍니다.



10월16일, 한국대사관 대강당에서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 한인회(회장 신기엽), 대한체육회(회장 양영연)를 비롯한 선수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4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재인도네시아 선수단(단장 김주철) 출정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주관을 맡아 진행되는 제 94회 전국체전이 18일 인천에서 성대히 막을 올린다.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은 모두 7종목 100명(선수 51명, 임원49명)이며 금빛 메달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출정식에서 김주철 단장은 “그간 선수들의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마지막 컨디션 조절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선수들에게 당부하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여 대승할 것”을 다짐하였다.

김영선 대사는 “빨간 자켓과 흰바지가 멋있다”며 “작년의 성과에 부담 갖지 말고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긴장하지 말고 평소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고 하며 “인도네시아 한

인사회의 기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영연 회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김주철 단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임원과 선수들이 혼연일체 되어 필승의 결의로 경기에 임할 것이며, 선수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93회 대구전국체육대회에 인도네시아 동포 선수단은 16일까지 마친 최종경기에서 7종목에 출전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9개를 따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해외동포선수들과 겨룬 경기에서 종합성적에서는 1위 일본(금13 은5 동4), 2위 필리핀(금4 은7 동3), 3위 호주(금4 은1 동3), 4위 중국(금3 은7 동5), 5위 뉴질랜드(금3 은2 동4)에 이어 인도네시아(금1 은5 동9) 6위로 기대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





## 인도네시아에 최초 생보사 진출! 한화생명개소식

**한**화생명이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보험영업에 나선다. 한화생명은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켐핀스키 호텔에서 개업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했다. 개업식에는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이사, 백성택 아세안 대표부 대사, 현정섭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장, 헨드리스만 인도네시아 생보협회 회장 등 한화생명 관계자를 포함해 2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화생명의 현정섭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이날 “오늘 개업식을 갖기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해준 인도네시아 정부, OJK(금융감독청),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한 많은 인도네시아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금융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한국 생명보험회사이다. 당사는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수라바야, 메단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현정섭 인도네시아 법인장에 이어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동남아 최대 신흥국이자 리더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생명보험 시장 역시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과

정에서 한화생명 인도네시아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화생명은 한국시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해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10년내 M/S 기준 10위권내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베트남,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진출하게 된 한화생명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동남아 시장에서 보험한류를 일으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올해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에 영업점을 개설했으며 내년 초에는 스마랑, 마까살에 영업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내년 말까지 총 8개 지역에 영업점을 목표로 하여 3천여건의 신계약과 250억루피아의 수입보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5년 후인 2018년까지 수입보험료 1조루피아 달성과 전국의 영업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30~40대 중산층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변액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교육보험 및 단체 건강보험 판매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교육열이 높고 직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특성에 맞는 판매전략을 구축할 예정이다.

## Banten Monorail 건설사업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는 BSD(Bumi Serpong Damai) 지역과 Soekarno-Hatta Airport 를 연결(약 35 Km)하는 Kota Tangerang 및 Kota Tangerang Selatan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우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Serpong 과 Tangerang 을 연결(약 18 Km), 개통 후 공항과의 남은 구간을 건설하는 2단계 Project 이다.

대중교통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보조금은 세계적 인 추세이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액을 승객들의 운임만으로는 적정기간에 회수할 수가 없으므로 Banten 주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금, 석탄, 철광석등)의 채굴권을 투자기로 협의를 마쳤다.

PT. Banten Global Development(BGD)와 Petras Consortium (Investor)는 PT. Banten Monorail(BM)을 설립함과 동시에, 본 사업을 지원하는 자회사로 가칭 PT. Banten Resource Development(BRD: 자원개발업)과 PT. Banten

Property Development(BPD:산업단지 개발업)을 설립키로 하여, 2014년 8월 17일(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1단계 공사의 기공식을 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국책사업인 Tanjung Api Api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인도네시아의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한국의 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상대방의 강점을 접목, 향후 양국간의 협력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개소 ... 동남아 진출 가속

- 센터, A/S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 및 신뢰도 향상 기대
- 복지부 센터 설립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베트남 보건성 방문
- 센터 설립 취지 소개 및 국산 의료기기 우수성 홍보 등 기업 마케팅 지원

보건복지부는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가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는 국산의료기기 A/S 지원, 현지 사용자(의사) 대상 국산장비 사용 교육,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 인큐베이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 초 센터 주관기관을 공모했고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을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소식에 맞춰 인도네시아, 베트남 보건부를 방문해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를 소개하고 향후 의료산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0월23일 인도네시아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가한 후 인도네시아 보건부를 방문해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보급 확대 등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의료기기 기업의 법인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해외진출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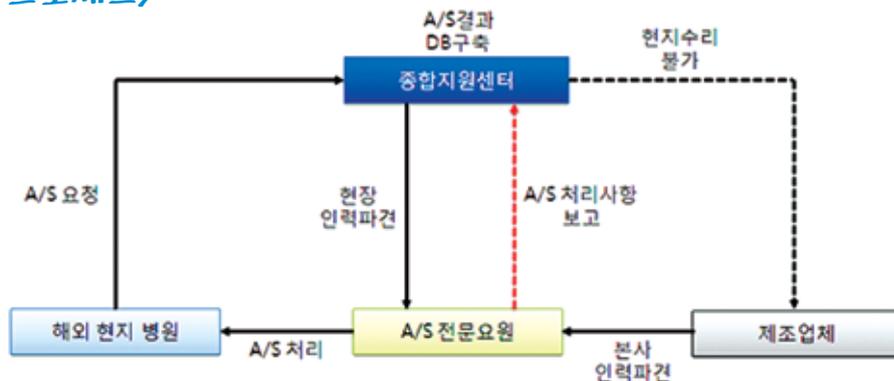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가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신뢰도 확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해외 시장(동남아 지역) 개척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의료기기 시장이 연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으로써, 현재 130여개의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약 44백만불, 베트남에 약 19백만불을 수출하고 있다”며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는 A/S 등 사후관리 강화 및 시장조사, 마케팅 등 사전관리 등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해 신흥시장에 국산 의료기기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동 사업의 추진성과 및 의료기기 업계의 수요에 따라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197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 <A/S 지원 업무 프로세스>



## 수마프라 내 저열량탄 화력발전소 건설 "저열량탄을 자원화 시키는 창조에너지 선도사업"



지난 10월 11일 자카르타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투자포럼’에서 수마프라 잠비주 역내에 건설 예정인 ‘관민협력개발방식(PPP)의 민자화력 발전소건설 MOU’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광산입지형 화력발전소(Mine-mouth Coal-fired Power Plant)가 400 메가와트(200 메가와트 x 2기) 규모로 건설되며 약 7억 5천만 불이 투자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9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잠비(Jambi)州政府, 때보 아궁 인터내셔널(PT. TAI),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대우 인터내셔널로 이루어진 콘소시엄이 구성된 바 있다. 특히 발전용 유연탄을 공급할 광업사인 때보·아궁·인터내셔널은 2005년 10월에 설립된 현지법인으로, 배상경 회장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상기는 잠비주 때보군 스맘부촌에 7천 헥타의 광권

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생산허가(IUP Operasi Produksi)를 완비하였다. 유연탄 총 매장량은 1억 9천만 톤에 달하며, 상기 발전소를 위해 25년 간 약 8천만 톤이 공급될 계획이다.

상기 발전소는 광산개발과 발전소 운영이 병행되는 광산입지형(Mine-mouth) 발전소 사업으로, 운송비 부담을 덜어 발전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저열량탄(GAR 3,000 kcal)을 에너지화시키는 선도사업으로, 본 프로젝트가 계기가 되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열량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콘소시엄은 이번 MOU 체결에 근거하여, 2014년도부터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가며, 전력구매계약(PPA)을 거쳐 201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경제일보)



## UI 한국어과 학생에게 한국 산림휴양 전수



### 센트럴 생태·교육 모델 숲에서 한국 산림휴양 문화를 배운다

**한** -인도네시아 산림센터(센터장 남성현)는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맞아 개장(7.4)한 「센트럴 생태·교육 모델숲」에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 및 교수 50여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우수한 산림휴양·생태관광 체험 및 양국간 우정을 기념하는 식수행사를 실시하였다.

남성현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산림휴양 복지 서비스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이번에 개최된 숲 체험 행사는 지난 10월 12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궁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임석하에 신원섭 산림청장과 줄기프리 하산 산림부장관간 체결한 「산림휴양 및 생태 관광 확대에 관한 MOU」의 실천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는 모델숲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안내·불거리 제공을 위한 「방문자 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산림휴양·생태 관광의 메카로 발전 시켜갈 계획이다.

이 MOU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수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인도네시아에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KOICA, 고품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10월 2일 Atlet Century Park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고품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니 측 Dwimo Soeranto 공공사업부 국제협력부 부국장, Herniwaty 데폭 지역 개발국 대표, Purwanti 남부 땅그랑시 대표, 우리 측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최재규 선진엔지니어링 부사장, 한래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장 등 양국 관계자 25여명이 참석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도심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개발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품폐기물에 대한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나, 불충분한 공공 재정, 부족한 기술 및 노하우와 적정 토지 확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KOICA는 이 사업을 통해 200만불을 투입하여 데폭 시와 남부 땅그랑 시를 대상으로 고품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실제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폐기물 관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니 정부의 폐기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공무원 대상 한국 내 연수도 함께 추진된다.

김병관 KOICA사무소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협력사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 실행에 있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책임 분담, 우리 측 시행기관에 대한 인니 측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금번 사업은 2014년까지 시행되며, 데폭 시와 땅그랑 시의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의 친환경적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설명: (좌측부터)Dwimo Soeranto 공공사업부 국제협력부 부국장(일곱 번째),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여덟 번째), 오연금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부소장.



### 제4회 땅그랑 반트 한인회 골프대회 및 한인의 밤



진정한 한인 속에서 하나되는 땅그랑 반트 한인회!!  
이제 한국은 가을의 낭만은 하나들 사라지고 앙상한 뼈처럼 들어나는 나뭇가지와 플라타너스  
낙엽들이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도로 위에 춤을 추는 11월 입니다.

#### 1) 일시 및 장소

- \* 일 시 :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TEE-OFF 12 :30, 저녁행사 오후6시
- \* 장 소 : Imperial Golf Club House

#### 2) 초대권

- \* 골프 초대권 : 남성 (Rp1,000,000), 여성 (Rp800,000, 선착순 20명)
  - \* 저녁행사 초대권: Rp300,000
- 한인의 밤 행사 초대권은 한인회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 3) 골프대회

- \* 골프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11월 2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천시에는 나인홀로 정리하겠습니다.
- \* Nearest (7,14번홀), Longest(4,11번홀), Hole in One (5번홀)
- \* 당일 점심 식사는 한인회에서 준비합니다. 다만, 그늘집에서 드시는 음식은 각자 계산하셔야 합니다.
- \* 조편성에 있어 동반 플레이어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내도 가수다”

- \* “내도 가수다” 의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남성 2명, 여성 3명)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선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 5) 초대가수

- \* 이범학 (이별아닌 이별, 이대팔)

#### 2. 한인회 사무실

- \* Hyundai Amartapura A-1H (TEL: 021-9179-6313)

♣한인의 밤 행사에 경품제공을 원하시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되는 족자한인회 Bersatu Kita Teguh!  
The Korean Association of Yogyakarta Indonesia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한인회

### 2013년 제 10 대 족자카르타 한인회 회장단 안내

- |        |                           |
|--------|---------------------------|
| 회장     | : 박병엽 / Park Byung Yeop   |
| 총무     | : 조용재 / Cho Yong Chae     |
| 연락처    | : 0815-4880-0256          |
| e-mail | : info.jogjakor@gmail.com |
| 홈페이지   | : www.jogjakorea.com      |



20일 Theater Jakarta Taman Ismail Marzuki 에서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공연예술축제인 ‘아트 서밋 인도네시아 2013’ 에 초청돼 한국국립현대 무용단의 ‘불쌍 Bul-ssang’ 공연이 있었다.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의 ‘불쌍’ 은 Buddha pops - Jumpers (시간을 뛰어넘는 문화적 연대기) - Iconize - Cultural complexity 총 4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있다. 무대 위에 놓인 다양한 부처 이미지들이 점차 원형을 알 수 없게 변해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혼성모방 혹은 변형되는 과정을 차례차례 보여준다.

‘불쌍’ 의 모티브가 바로 파리의 부다바(Buddha bar)라고 한다. 동양의 신성한 불상이 유럽의 한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로 쓰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 기호화로 대변되는 현대문화의 한 단면을 표현한 작품이다.

‘불쌍’ 은 불교 문화의 상징인 ‘불상’ 을 소리나는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불교가 가지는 무겁고 신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밝고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작품’ 을 만들고자 하는 안무가의 의도가 녹아있는 제목이다.

안애순 예술감독은 “서양인들의 관점으로 재구성한 불상이 최근에 동양 문화권에 역 소개되면서 오히려 각광받는 모습을 보고 문화의 혼합과 충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고 밝혔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한 관람객은 “K-POP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술이 이번 공연을 통해 성공적인 예술적 교류가 되길 바란다” 며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고 말했다.

‘아트 서밋 인도네시아 2013’ 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3년마다 개최하는 축제로 올해는 ‘현대예술과 시장개척’ 이라는 주제 아래 8일부터 23일 까지 펼쳐졌다.



# 제14회 인도네시아 한인 미협전



지난 23일 한인미술협회(회장 이은수) 주관 ‘제 14회 인도네시아 한인 미협전’ 개막식이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작가의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총 19명의 작가가 50여점의 작품을 출품했고,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전시됐다.

이은수 미술협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무엇보다 그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개인의 발전이 곧 협회의 발전이라 믿으며 꾸준히 노력해 왔다” 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휴식을 취하며 여유로운 문화 산책을 즐겨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김영선 대사는 “한인 동포들의 정서 생활에 또 다른 환희와 뿌듯함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협회 회원인 김현경 작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첫 출품작이라 마음이 설렌다” 며 “내가 생각하는 인도네시아를 화폭에 담아보았다” 고 작품을 설명했다.

특히, 동양화 특유의 기품 있고 부드러운 선과 서양화의 화려한 색채의 혼합을 시도한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는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 한복 페스티벌 한복을 통해 한국의 미의 바람이 불다



이날 한복 패션쇼는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기념해 열리고 있는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E FAIR)의 일환으로, 롯데쇼핑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가 공동 주최하여 21일 자카르타 롯데쇼핑 에비뉴(LOTTE SHOPPING AVENUE)에서 열렸다. 인재 손인식 서예가의 ‘한의휘인 (한국의 의상, 인도네시아에서 빛이 난다)’ 휘호 시범으로 패션쇼가 시작되었다.



한복의 미와 우아함을 알리기 위해 열린 패션쇼는 우리나라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약 한 시간 동안 한복 디자이너 목은정씨가 직접 제작한 한복을 한국에서 직접 공수하여 왕과 왕비의 궁중한복, 어린이 한복,

전통과 현대적인 느낌의 퓨전 한복, 웨딩 한복 등 개성 있고 다양한 종류의 한복을 선보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문화가 큰 바람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 아람씨의 고전무용 ‘바람을 깨우다’가 패션쇼와 어우러져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이날 한복 패션쇼가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현지의 자원봉사 교민들이 모델로 참여해 그들이 게도 깊은 추억과 인상을 남겼다.

모델로 무대에 선 한 교민은 “한류의 힘이 느껴진다”며 “진부한 한복이 아닌 진화하는 한복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고 말했다.

한국의 한복이 인도네시아에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교민과 자녀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일깨워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 JIKS

## 한글날 행사

학생들, 다양한 한글날 행사를 통해 한글의 소중함 되새겨



2013년 10월 9일(수), 한글 반포 567주년인 한글날을 맞이하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는 교내 한글날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JIKS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이루어지는 이 대회에는 올해도 1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여 평소에 같고 닮은 글 숨씨를 겨루었다. 대회는 학년별로 경필, 생활문, 시, 만화, 예쁜 글씨체 만들기, 생활용품 한글 디자인, 한글 넣은 옷 디자인, 한글홍보 포스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대회에 앞서 학생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다룬 '경이로운 문자 한글'이라는 다큐멘터리(CBS제작)를 시청하였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학년별 부문별로 각각 한 명의 최우수(6학년 조은빈 외 15명)와 89명의 우수 및 장려상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최우수 작품들은 초등 중앙 1층 층계참에 게시되었다. 수상자 중에는 외국인 학생(알렉스, 2학년 만화

부문 장려)도 있어 외국인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 인도네시아 실업계 고교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 되고 한류 열풍으로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국제학교인 JIKS는 앞으로 한글 교육 길잡이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JIKS 초등 수영대회

### 교사리손으로 물살을 가르다

10월 18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 수영장은 제 14회 교내수영대회의 열기로 출렁였다.

이날 대회에는 1~3학년 82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쌓은 수영실력을 선보였다. 경기는 남녀, 학년별(1학년 25M/2,3학년 50M)로 나눠 자유형·배영·평영·접영 등 4개 종목 개인시합과 학급대항 자유형 릴레이로 진행되었다.

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멋진 승부를 펼쳤다.

각 학년 종목별 우승자에게는 금메달(자유형종목, 3학년 하경목외 23명)이 2,3위 학생들에게는 은·동메달이 수여되었다. 특히 이지은(1-1),

지다빈(1-2), 김지훈(2-1), 백서연(2-3), 나하은(3-2) 학생은 각각 두개의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올랐다.

JIKS는 정규교과(1~3학년) 및 특별활동으로(4~6학년) 수영 수업을 실시하고 방과 후 수영교실 '돌핀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체력 증진과 소질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꽃벌들의 영어축제, JIKS 'Spelling Bee' - 경쟁과 협동 통해 영어실력 길러 -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 교장 김승익)에서 '2013 교내 스펠링 비 (Spelling Bee) 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개인 및 학급 대항 영어어휘 대회로 학생들의 정확한 영어철자 사용과 어휘력 신장을 위해 세계적인 영어철자 말하기 대회인 스크립스 내셔널 스펠링 비 (Scripps National Spelling Bee)를 본 따 JIKS의 특성에 맞게 고안해 실시하고 있다.

예선전은 지난 11일 3~6학년 각 교실에서 듣기와 지필 평가 형식으로 치러졌으며,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은 각 반 8명의 학생들이 본선에 참가했

다. 본선은 교내 나래홀에서 학년별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3일간 치러졌다.

최우수 학급에는 트로피가 수여되며, 각 학년별 최우수 (1st Place Award)의 영예를 안은 박준경 (3-2), 최인태 (4-3), 최예림 (5-3), 이성재 (6-1) 학생과 본선 참가자들은 대회 참가에 대한 상장과 상품을 받게 된다.

JIKS는 이 외에도 영어일기쓰기 대회, 영어듣기 경시대회, 영어단어 경시대회, 영어말하기 대회, 영어에세이쓰기 대회, 모의토플 등 초·중·고 학년별 특성에 맞는 영어 대회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 JIKS 초등학생들, 퀴즈잔치로 책의 재미에 빠지다.

10월 29일 (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 교장 김승익) 대강당에서 제 3회 독서OX퀴즈잔치가 열렸다.



초등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행사는 학생들이 문제를 듣고 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면 O 카드를, 아니라고 생각되면 X 카드를 번쩍 들어 들리면 탈락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책은 학생들이 평소 독서 시간에 사서교사의 지도로 꾸준히 읽어 왔던 책들을 포함, 각 학년 추천도서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읽었던 책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즐겁게 지혜를 겨루었다.

지난 9월 24일 실시된 초등 4~6학년 대상의 독서 골든벨 대회와 함께 이번 독서OX퀴즈잔치는 초등 학생들에게 이벤트 참여를 통해 책읽기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소통하는 JIKS, 교실 문 활짝 열어 학부모 초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는 10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초등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공개는 담임 교과뿐만 아니라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태권도, 수영 등 초등과정의 전 교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양일간 많은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 장면을 참관하였다.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자 JIKS는 매년 1회 학부모들을 초대하여 수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중등과정은 올해 4월에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한 바 있다.

교사들은 공개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다시금 가져볼 수 있었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직접 보며 내 자녀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공개수업 다음 날인 24일에는 2학기 학부모 면담 Day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이 담임교사 및 상담을 원하는 교과 담당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보다 나은 자녀교육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등과정 전입생 전형 안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김승익)는 2014학년도 1학기 전입학생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전입학 전형 일정입니다.

접수기간	2013. 11. 11(월)~2013. 11. 25(월)
전형일시	2013. 11. 30(토) 08:00~13:00
전형과목	국어, 수학, 영어, 면접
합격자발표	2013. 12. 04 (수) 12:00
대상	7~11학년

학교 사정상 내용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www.jiks.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강주미 [021-844-4958(Ext.1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J I S



## IASASC 축제

(학생기자 권기남)



자카르타국제학교 (JIS)에서 IASAS 축제를 개최하였다. IASAS는 동남아시아 6개국 국제학교 연합으로 매년 JIS외 다른 나라의 국제 학교들이 한 학교에서 모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축제는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 간 진행되었으며 JIS에서 진행한 종목은 배구와 Cross-country였다. Cross-country는 육상 경기 중 5킬로미터를 달리는 종목이고 배구는 12학년의 홍덕현 선수가 JIS 대표로 참여하였다.

Cross-country종목은 남녀 모두 싱가포르 국제 학교가 우승했으며 JIS는 남자 3위, 여자 4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남자 개인부문 1위는 JIS의 12학년 Aidan Kinney가 17분 5초를 기록하며 5킬로미터를 완주하였다.

한편 배구 남자팀은 6위, 여자팀은 4위를 차지하였다. 결과는 아쉽지만 이 두 팀의 열정과 경기에 임하는 태도는 그 어느 팀보다 진지하였으며 이들의 배구 경기는 JIS에서 열려 수많은 학생들이 응원에 동참하였다.

같은 시기에 대만에서는 축구 경기가 개최되었다. 해외 원정을 간 JIS 남자대표 축구팀은 아쉽게도 싱가포르국제학교를 상대로 결승전에서 패하여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고, 여자는 5위에 머물렀다. 축구 남자팀 선수로 12학년 이동엽 선수와 11학년 김진우 선수가 참여하였다.

IASAS축제는 JIS의 중간방학 바로 전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된 만큼 많은 학생들이 관전할 수 있었다. JIS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체육관을 방문하여 경기를 알렸고, Cross-country 선수들은 학교를 뛰며 학생들에게 응원을 외달라고 홍보한 탓이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많은 학생들이 JIS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흰색 의상을 입고 동참했으며, 결승전이 열린 토요일과 방과 후 7시까지 진행되는 경기를 응원 하였다.

배구 대표팀에서 2년째 선수로 출전하는 홍덕현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에 가기 전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하면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친구들이 직접 볼 수 있는 JIS에서 경기를 하는 만큼 잊지 못할 추억도 쌓고, 친구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신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JIS는 올해 11월 중순 IASAS 모의 UN 회의를 개최하고, 이 외 두번의 체육 종목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외 취미를 찾고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여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란다.



## 인도네시아 출범식 및 차세대 생생토크

KOWIN 인도네시아 출범식과 한국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차세대 양성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윈 정회원(여성인재들)들과 차세대(현재 유학/어학연수생 및 사회초년생들)들을 위하여 정보공유와 취업 및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킹, 생생토크 등 실질적이고 알차며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코윈 멘토그룹 을 소개합니다.

여성인재 및 차세대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코칭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코윈멘토그룹이 탄생되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그룹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멘토그룹의 회장인 홍승용 덕성여대 총장(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께서 행사에 참석하여 코윈회원 및 차세대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날 짜 : 2013년 11월 9일 (토요일)  
시 간 : 11:00 ~ 15:00 (점심식사 제공)  
장 소 : 롯데 쇼핑 에비뉴 ICE PALACE (4층)  
Jl. Prof. Dr. Satrio, Kuningan, Jak Sel  
021.2988.8640~4

참석대상 : 코윈 회원, 차세대 회원 및 회원 가입희망자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코윈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KOWIN 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KOWIN(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란?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 인적 자원을 개발·활용하고, 국·내외 여성 및 세계 각 지역 한민족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산하 단체입니다.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0815-1070-1004 로 문의해 주십시오.

**mail** <sup>온라인</sup> 한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 쇼핑

**당일배송 서비스**

K몰은 주문하신 슈퍼제품을 집까지 **당일배송** 해드립니다.

전화주문 : 0852-1649-5308 카카오톡 주문 ID : kmallindo

기업 및 지방 주문 상담 환영!!

[www.kmall.co.id](http://www.kmall.co.id)

## 코린도 장학재단 인니대학생 장학금지원



Universitas Indonesia



Universitas Gajah Mada



Institut Pertanian Bogor



Universitas Nasional



Universitas Padjadjaran

코린도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지난 10월 24일 5개 인도네시아 대학교 학생 2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코린도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U.I., IPB, UNAS, UNPAD, GAJA MADA 대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연인원 6백여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U.I., UNAS, GAJA MADA 대학교에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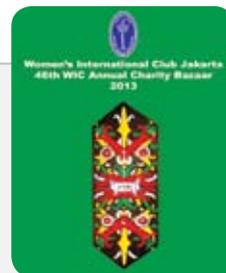
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졸업후에 한국계 기업체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코린도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매년 1-2명의 인도네시아 대학생을 한국의 대학교와 연결하여 교환학생으로 보내고 있으며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이 30여 명에 이르고 있다.

### 2013 WIC Charity Bazaar

27 & 28th November, 2013

- 27th Opening Day (Invitation Only)
- 28th Public Day



### 2013 WIC (국제부인회) 자선바자회

일시 : 첫날, 2013년 11월27일,수요일  
(초대장 소지자만 입장 가능), 1pm-8pm

둘째날, 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입장권 Rp8,000 현장 판매) , 9am-8pm

장소 : JCC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 Hall B



## CH 101포럼 한인회 방문

4일 금요일 오후 CH101포럼의 기업인 11명이 한인회를 방문해 신기업 회장, 조규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CH101포럼 회원들은 한국에서 금융, 교육, 제조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시장조사외 기업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조언을 얻고자 한인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신기업회장은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은경 (CEO 세라트) 씨는 “CH101은 Competition & Happiness의 약자이며 10년안에 Global No.1 기업을 만드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며 “인도네시아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문이었다” 고 말했다.

한국 사회적 기업 (우리아이 Eco) 최재성씨는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구축하고 인도네시아의 착한기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문화, 경제, 정치 및 한인사회의 지난 성공사례와 한인 기업들의 발전상에 관한 담소를 나누었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Korean Section



## “독 독 인도네시아 경제”

### 〈광고로 본 인도네시아 경제〉

강사--신성철(데일리 인도네시아 대표)  
지난 10월 12일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개최된 경제강의는 신성철대표의 쉽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경제라는 거리감을 좁혀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솔로점 오픈



롯데마트가 10월 31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와 솔로시에 인도네시아 소매 12호점(인도네시아 도,소매 전체 35호점)을 오픈 하였다. 솔로시는 인구 132만명의 중부 자와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소득 수준 또한 높은 도시이다. 솔로시는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인 'Batik'

의 주산지이며, 인도네시아 최대의 섬유 시장이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다.

롯데마트 솔로점은 솔로 바루 지역내 중상층 거주 지역에 위치하는 솔로 더 파크 쇼핑몰내에 영업면적 약 1,200평의 규모로 오픈 하였다.

솔로 더 파크 쇼핑몰은 롯데마트와 함께 유명 백화점,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점하여 솔로시에 새로운 쇼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 '윤주경' 법인장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인니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다 편리하고, 차별화된 매장을 선보이기 위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한국적 마케팅 시스템을 접목해 운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특히 롯데마트 솔로점은 매장내 Batik, 전통 수공예품 등 지역 우수 상품과 다양한 수입상품을 구비하였고, 롯데마트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솔로 지역내 최고의 할인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 <롯데마트 국내/외 점포 수 현황>

구분	2013년(현재 기준)	
총계	249	
국내	107	
해외	소계	142
	중국	103
	인도네시아	35
	베트남	4

그대가 그리울 땐 바다를 찾는다

내 맘이 너무나 아파서  
겨울 바다에 마음을 내려놓고  
눈물이 속 빠지도록  
파도에 서글픈 마음을 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엔 내 맘을 받아 줄 수 있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  
그 사람을 불러봅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요즘 이토록 멀게만 느껴지는지  
물결치는 바다에 서글픈 마음 지우며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리니다

오늘도 겨울 바다를 찾아  
그리움을 내려놓지만,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리움은 날 바보처럼  
먼바다만 바라보게 합니다.

김득수 시인 ( 1951~ )



대한민국 제주도 우도면



## 땅그랑지역, 의료자원봉사 펼쳐 인사모 단장 변해철교수와의 인터뷰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칭)이라는 이름의 의료 자원봉사단이 지난 10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과 교류”를 목적으로 의료 상담과 자문 등의 활동을 했다.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과 변해철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17명의 의사와 약사, 변호사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이틀간 땅그랑 지역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을 돌보았다.

그밖에 자카르타 현지 마타하리 병원의 이태걸 박사(외과)외 다수의 현지 의료진과 최병조(PT. MKC), 김석(PT. MKC), 이수진(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김주현(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장민환, 임윤희, 장명희, Sobari 교수(UNAS) 등 다수의 교민들이 통역 및 노력봉사를 하였다.

###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003년이래로 UGM, UI, UDAYANA UNIVERSITY 등과 학술세미나를 통해 학문적 교류에 주력하여왔습니다. 금년 2013년에는 안식년을 맞으면서 인도네시아를 좀더 알기 위해 UNAS의 대학원 법학과에서 방문교수로 강의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교 4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대해 교감을 갖고 있던 의사 친구들과 몇 년 전부터 의료 봉사활동을 의논하던 차에 올해에는 이를 실천에 옮겨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의료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과 인도네시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과 교



류’를 이번 행사의 목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의료 복지에 접근하기 힘든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사회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점점 많아져 양국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 어느 지역에서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셨는지요?

현지 관계자로부터 두 군데를 추천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Tangerang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공식 허가를 받은 보육시설(Yadin보육원)이었는데, 원생들 숙소와 기도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제법 넓은 기도실에서 검진과 상담을 하였다. 다른 한 군데는 개인 봉사자가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루룽의 집)였는데, 공무원부인회에서 활동하는 Ibu Ice가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보육시설의 경우, 7세에서 17세까지의 약 150명 정도의 미래 세대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루룽의

집' 공동체에서는 약 110명 정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비인가시설이어서 후원이 거의 없다고 하는 '루룽의 집' 공동체는 우리의 쪽방촌 비슷한 곳이어서 좁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양쪽의 집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검진 및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방의 경우, 공간이 좁아 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번 의료 봉사활동을 위해 후원한 단체를 소개해 주십시오.**

후원단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업체들입니다. PT. 호전 실업(대표 박용철), PT. KIDECO JAYA AGUNG(법인대표 김달수) 및 ㈜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 외대 마인어과 84)이며, 항공료 및 숙박료, 현지 활동비용, 비타민, 의약품 등을 후원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밝힌 후원업체 덕분에 좋은 뜻을 펼치고 원활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이번에 지면을 통해 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의료 봉사를 처음으로 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료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를 하다 보니 현지인들이 생활하면서 자세를 잘못하여 어깨 결림이나 척추 측만증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초등이나 중등의 어린 학생의 경우도 잘못된 자세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깨를 앞으로 너무 수그리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올려서 목이나 어깨에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생활하도록 교정해주고 이를 시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행사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보람되다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어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 왔습니다. 행사장 한 구석에서, 사진기와 즉석 인화기를 준비하여 의료진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의 사진을 찍어서 나눠 주었는데, 자신의 얼굴이 든 사진을 받아 들고 경중 경중 뛰며 기뻐하는 현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져온 문구류와 한국산 비타민, 구충제, 수건 등을 현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 주었는데, 값진 선물로 귀하여 여기는 현지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 것도 의료 봉사 활동 못지않게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봉사가 끝나고 루룽의 집에서 소년소녀들이 노래와 전통춤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매년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봉사를 하면서 부족했다고 느꼈던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보육원생들을 검진한 결과 상당수의 소년소녀들이 척추가 휘거나 시력이 저하되어있는 등 잘못된 생활자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부인과와 경우도 성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공동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체적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노인들을 위한 돈보기 배부 등 지원품목에 대해서도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의료 봉사단은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11월 9일에 서울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으며, 이번 행사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봉사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일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기쁨을 나누어 받고 돌아가며, 열정적으로 협조해주신 많은 현지 교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뷰 : 이수진

#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특급 조언

“노후의 5대 적 창업.사기.건강.부부.자식 조심하라”



수명은 길어지는데 퇴직은 빨라진다. 인생 1막은 부모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었다면 인생 2막은 노후 준비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퇴설계 전문가 김진영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이 들려주는 행복한 노후 준비법.

“은퇴 후 5년이 인생 후반전을 좌우한다. 새로운 인생이 평화롭기를 바란다면 다섯 가지 변종 크레바스를 조심하라.”

20여 년간 쌓은 자산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퇴설계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김진영(51)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그는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는 중장년층 고객에게 늘 이런 조언을 한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이다. 눈에 덮여 잘 보이지 않지만 발을 잘못 디디면 그 좁은 틈으로 자일에 엮인 사람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참사로 이어진다.

최근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서 제목

을 따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홍익출판사)라는 책을 펴낸 김 소장은 “현실감 있는 은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은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실감 있는 은퇴 준비란 단순히 재산 증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 들어갈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소득과 지출까지 모든 흐름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크레바스를 파악하는 일이다. 바로 창업, 사기, 건강, 부부, 자식이라

는 5가지 위험 요소다. 김진영 소장은 “대체로 은퇴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이런 위험들은 노후 전체를 망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크레바스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자세  
김진영 소장은 은퇴 설계는 5년 단위로, 부부가 함께할 것을 권했다.

30~40대에 일찍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은 인생 2막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 업종은 주로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빵집이 대부분이다.

호텔 주방장으로 일하다 음식점을 차린 50대 박준수(가명) 씨는 시세 3억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기존 주택 담보대출 9천만원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박씨가 재료비, 인건비 등을 빼고 집에 가져가는 돈은 기껏해야 월 2백50만원 남짓. 이 중에서 1백6만원을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나면 남는 돈은 1백40만원 정도였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생활은 빠듯해 얼마 전에는 대부업체에서 5백만원의 생활 자금을 대출받았다. 호텔 주방장으로 일했다면 연봉이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은 됐을 텐데 그때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으니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평생 요리사로 일해왔기에 자신만만하게 창업에 도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 신세였다.

김 소장은 박씨처럼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실패한 경우,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가정불화, 화병, 빈곤층 전락, 자식들과의 단절 등으로 이어져 은퇴 후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5년 동안 창업해 살아남을 확률은 35%밖에 안 돼요. 음식점의 경우 10개 중 7개가 5년 이내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업 후 6개월 이내에 문을 닫는 곳도 7%나 돼요. 퇴직 전 했던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 창업을 한다고 해도 직장 생활과 창업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낙관이나 막연한 기대감을 떨쳐버리고 창업을 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얻는 게 좋은

지 창업에 내가 적합한지, 업종은 어떻게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도 마찬가지. 김 소장은 “요즘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노후 대비로 토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실제로 그가 들려준 사기 피해 중에는 제주도에 있는 임야를 추천받아서 펜션을 지으면 노후 걱정은 안 하겠다던 생각에 퇴직금 일부를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자동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숲 속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였던 사례가 있었다.

그는 “가보지도 않고 사람만 믿고 투자해서 생긴 일” 이라면서 “투자 할 때는 지인을 통한 소개든 평소 친분이 있는 경우든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무조건 자신의 발로 뛰면서 실제 부동산 가치가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 고 조언한다.

건강 크레바스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지불하는 의료비는 2011년 기준으로 평균 1억3천6백만원이다. 2006년에는 6천4백만원이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2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50세까지 들어가는 의료비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반면 50대와 60대에 30%가 들어가고, 70세 이후에는 50%가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계속)

글·최은성 자유기고가 | 사진·조영철 기자, REX 제공



# 노니 (Noni)

## 남태평양의 선물



일반명: Noni(영), Indian Mulberry(영), Mengkudu(인니)

과 명: 꼭두서니과 (Family: Rubiaceae)

학 명: *Morinda citrifolia* L.

기원지: 인도네시아, 호주 지역으로 추정

분 포: 인도양 연안지역, 동남아시아, 태평양 연안지역, 카르브해 지역

이 용: 식용 및 약용, 건강보조 식품

모양새: 외양은 마치 감자같이 생겼으며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빛깔이 나며 연녹색이다.

백 진 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노니는 교민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약용식물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현지 약국이나 상점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인 슈퍼등에서도 쉽게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서는 쉽게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복용하시고 효험을 보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 분포 및 생김새

노니는 키작은 상록성 교목으로 커피 나무가 속하는 꼭두서니과(Family Rubiaceae)에 속합니다. 노니의 기원지는 인도네시아에서 호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인도, 동남아시아, 호주, 하와이, 타히티 등의 태평양 섬들과 남미, 캐리비안 등 전세계 열대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해안가나 저지대의 모래 토양(화산재), 황무지나 목초지 등 가리지 않고 잘 자랍니다. 크기는 약 10 m 높이로 자라고 잎은 마주 나며 긴 타원형이며 20~40 cm 표면은 광택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흰색 꽃송이가 계속해서 피고지며 타원형의 열매로 자랍니다. 열매는 여러 개의

작은 열매가 모인 집합과로 약 15cm 정도 크기이며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꽃이 진 자국이 무늬처럼 남아있습니다. 연녹색으로 익으며 갈색 씨앗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 익은 열매는 썩은 치즈와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인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 왔으며 하와이에 도입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남태평양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식용했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80~90년도에 들어 본격적으로 노니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경쟁이 과열되어 2002년과 2006년 미국의 FDA는 마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와 예방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회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전통적 이용

서인도 지역에서는 일종의 진통제(Painkiller)로 사용되었는데 뜨겁게 데운 노니 잎을 종기위에 붙이거나 습포제처럼 상처부위나 머리에 붙여 통증을 줄이는데 사용했습니다. 또는 잎을 으개어 돼지기름이나 캬포 오일과 섞어 얼굴에 발라 신경

통 치료나 머리 냉각증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특히 노니 나무껍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경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나무껍질에서 Turkish Red라 불리는 질 좋은 붉은색 염료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매염제로 쓰이며 전통방식의 섬유 염색에 쓰입니다. 자바에서도 오래전부터 노니 나무 뿌리를 채취해서 염색제로 사용했습니다. 열매는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비뇨기 계통이나 생식기계 계통의 질병 치료에 사용하였고 그 밖에도 당뇨, 비장, 간질환, 출혈 등의 치료에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무껍질은 수렴제로. 어린잎은 식용으로 큰잎은 음식을 싸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소화를 돕고 통증을 줄여 주며 혈압을 낮추는 등의 약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 노니의 효능

노니의 알려진 효능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노니의 신봉자들은 노니 열매와 노니 주스가 암, 당뇨병, 심장병, 콜레스테롤, 고혈압, HIV, 류마티즘, 알레르기, 감염증, 염증 등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생리통과 관절염, 폐양, 접질림(뺨), 골절, 우울증, 치매, 소화불량, 감기, 독감, 두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니 주스는 불쾌한 맛과 냄새(썩은 치즈냄새)가 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종류의 주스를 섞어 마시기도 합니다. 노니 주스는 각막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며 머리의 이(lice)를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노니 잎과 줄기 껍질은 토닉으로 만들어 비뇨기 계통의 질환이나 근육통, 관절염등에 사용하고 달인은 노니 열매는 으깨어 소금과 섞어 베인 상처나 골절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잘 익은 열매는 껌질약으로 만들어 얼굴이나 피부의 상처나 감염된 곳을 치유시키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노니 잎으로 만든 차(tea)는 결핵, 관절염, 류마티즘,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스, 추출물, 파우더, 캡슐, 세안제, 목욕젤, 비누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있습니다.

### 노니 효능의 증거

몇몇 동물실험과 실험실 연구들 통해 노니는 항산화효과, 면역증강, 항종양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암이나 심장질환에 대한 후속 연구에 큰 가능성을 제시해준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

와이 대학의 연구자들은 쥐를 암에 걸리게 처리한 후 노니 주스를 주사한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노니 주스를 주사한 쥐들이 그렇지 못한 쥐들보다 2배 이상 오래살았습니다. 또 다른 쥐 연구에 의하면 노니 뿌리 냉동추출물의 성분이 고통을 줄여주며 쥐의 수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하와이 대학에서 초기 전임상 1차 실험을 실시했는데 29명의 암환자들에게 노니 뿌리 냉동추출물을 투여하여 효능과 독성을 조사했습니다. 독성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그렇다고 특별한 효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투여받은 환자가 더 컨디션이 좋았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루이지아나 주립대학의 연구자들이 노니 주스의 성분중에 인간에게 활성이 있는 성분을 추출하여 정제하는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 노니의 부작용

노니를 음식으로 일정량 섭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의약적인 목적으로 대량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암연구학회나 미국대체의학센터(NCCAM)에 의하면 특히 노니에는 많은 양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니 차나 노니 주스를 장기 복용할 경우 간질환자의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이나 모유 수유기에도 노니를 먹지 말아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니는 전통적으로 유산을 유도한다 하며 모유 수유시 노니 섭취에 대한 안전성 연구도 부족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온 노니가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한 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노니는 그 이점만큼 주의할 점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써의 장기 복용이나 의약적 목적의 사용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노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고 하니 더 많은 후속 연구들이 계속 수행되어 노니의 어떤 특정 성분들이 암이나 여러 질병의 어떤 증상에 효능이 있는지 빨리 판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인



글: 신성철 (테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평화로워 보인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크지 않게 조곤조곤 말하고 누군가 농담이라도 던지면 웃음이 터진다.

품위를 지키며 화합하는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로 루꾼(rukun), 쁘자웬(kejawen), 트만(teman) 등을 들 수 있다.

1만7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 2억4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다종족 다문화 국가이다. 자바족이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주류를 이루며 ‘화합’을 강조하는 자바문화가 인도네시아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루꾼(rukun)은 우리말로 ‘화합’으로 번역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면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갈등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자바사람의 사회문화적 특질로 여겨지는 루꾼을 실현하기 위해 품위 있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하며, 이런 행동 양식을 성취하려면 친밀한 관계보다는 감정적 거리의 유지와 감정 표현 절제가 요구되고 이를 위한 자바인들의 규범과 관습을 ‘쁘

자웬’(Kejawen)이라 부른다.

쁘자웬은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화를 내지 않고 시종일관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작은 소리로 공손하게 말하며 “아니오”라는 말도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으로 묘사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말하고 화가 날 때는 비속어까지 섞어서 감정을 쏟아내는 한국인들은 화가 났을 때조차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는 자바인들을 보면 갑갑하고 속이 터진다.

반면 식당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식사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화를 내거나 한국인들끼리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또한 가정에서 가사도우미가 일을 잘못해서 화를 내면 다음날 그만두겠다고 해 오히려 당황하기도 한다.

쁘자웬은 넓은 의미로 자바의 규범과 관습을 지키는 사람을 뜻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의바른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동시에 음흉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 있다.

루꾼의 목표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한 이타적인 상태가 아니다. 타인을 향한 불만이나 증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억압되거나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것으

로 인정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표리부동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정착됨으로써 사람들은 타인과 나누는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된다.

폼위 있는 생활방식을 추구하려면 감정 표현을 절제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인들은 매우 가까운 관계보다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관계를 선호한다.

‘뜨만’이 갖는 의미의 광범위함은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낸다. 인도네시아어로 친구를 일컫는 뜨만(teman) 또는 자바어의 깐짜(kanca)는 한국의 친구 개념과 차이를 보인다. 이곳에서 말하는 친구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면식 있는 사람, 지인의 뜻에 가까워서 몇 번 만난 사람은 쉽게 친구라 지칭한다.

지인의 뜻을 갖는 말인 낄날안(kenalan)이 따로 있으니 친구와 지인은 그 가까운 정도가 구별되는 말이지만, 그 정도는 우리말만큼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친구에 더 가까운 어휘는 사하밧(sahabat)인데, 이 말은 선지자 무하마드를 따라다니던 추종자를 일컫는 아랍어에서 기원한다. ‘뜨만’이라는 어휘의 포괄적 성격 때문에 사하밧이 더욱 가까운 친구를 가리키는 데 이용된다.

표면적으로나마 화합을 추구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잘 웃는다. 인도네시아인과 사진을 찍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 웃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고 ‘아니다’라는 의미의 띠닥(tidak)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사양할 때조차 인도네시아인은 뜨리마까지(감사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미소를 짓는다. 따라서 자바인들과 대화할 때 ‘야’(ya 또는 iya)가 진정한 의미의 ‘예’인지 ‘아니오’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상황이나 표정을 살펴야 하고, 인도네시아 안에서 이것도 익숙하지 않은 다른 종족이나 외국인들은 자바사람들을 음흉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인도네시아인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로 ‘끼라끼라(Kira-kira 대략),

몽킨(mungkin, 아마도), 띠닥따우(tidak tahu 모른다), 꾸랑따우(kurang tahu, 잘 모른다), 무다 무다한(mudah-mudahan, 모쪼록), 뜨르스라(terserah, 알아서하세요), 인살라(insya Allah, 신의 뜻대로) 등이 있다.

사실대로 말해서 상대를 언짢게 하는 걸 원치 않거나 스스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할 때는 본인이나 부모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한다. 또한 때때로 실수를 하고 무안한 마음에 웃거나 미소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나 상사의 화를 돋우기도 한다.

즉 인도네시아인의 미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정말로 만족하거나 수궁할 때와 어색, 당혹스러움, 부끄러움, 근심, 거부, 긴장감 등을 감추려 할 때이다. 후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무시당한 다거나 뻔뻔하다고 느끼고 화를 낸다.

실수를 했을 때 표현방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인도네시아인은 그 순간을 부드럽게 넘기고 싶고 불편해지기 싫어하는 반면 한국인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사과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악수를 할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정해진 법칙이 없고 손바닥을 가볍게 대는 정도로 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손을 어느 정도 힘주어 잡는다.

자바인은 ‘웃는다고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한국인은 ‘화낸다고 원수가 아니야’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 적도를 달리는 남자(김형준 지음, 이매진), 인도네시아(캐시드레인 & 바버라 홀 공저, 박영원 옮김, 휘슬러)



#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 지성이면 감천 Tulus hati

동욱의 모도 아들을 잘 돌봐준 진사당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게 아니라, 가게에 들어서며 다음과 같이 진사당을 업신여긴다. (그림)

**“ Aku penasaran bagaimana mereka mendapat Nama norak Jinsadang ”**

여기 이름이 왜 그렇게 촌스럽게 진사당인가 했더니

Penasara 은 ~을 알고(알으려고) 갈망하는/ 매우 궁금한 의 뜻으로 보통 Ingin tahu, mencari tahu, sangat hendak, hendak mengetahui 와 같이 Ingin 과 같은 뜻의 Mau 나 Hendak 과 자주 쓰이는 구어체인 Kepinginan 뜻이 유사하지만 무언가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궁금해 하는 의 뜻으로 Sangat(매우)나 Sungguh (진심으로, 간절히)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

Contoh kalimat (예문)

### Penasaran

**Saya penasaran dengan keadaan di kampung setelah gempa.**

지진 후 고향 소식이 매우 궁금하다.

### Ingin tahu

**Saya ingin tahu cara kerja mesin ini. Adakah yang sudi mengajarkan?**

이 기계 작동법을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 Hendak

**Jika saya hendak menjual mesin ini, saya harus tahu cara kerjanya.**

이 기계를 팔기 원한다면 사용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 3회 이상 피트니스센터 가기, 금연 • 금주하기, 한달 7권 책 읽기 등의 목표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본능에 따른 욕구를 절제하고 능동적인 실천을 감행해야만 달성 가능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목표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겼을 때에만 가능하다. 또 의지력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엇을 원한다는 정도의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기 암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욕망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에서 보여지는 예리한 욕망이 지나쳐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도 본인이 피해자인 듯 착각하고 있다. 욕망과 의지력을 가지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해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트라마 속 주인공들의 지나친 의지력과 욕망은 밤에 대한 배려보다는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이 더 보인다.

**Mau tahu**  
**Saya mau tahu dimana restoran bakso yang enak di daerah sini.**  
 이 동네 어디에 맛있는 박소 집이 있는지 알고 싶다.

**Kepinginan**  
**Saya kepingin sekali pulang kampung, tapi sayang jatah cuti saya sudah habis.**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아쉽게도 휴가를 다 사용했다.

\*\*\* Kepingin의 어근은 Pingin으로 문어체인 Ingin 과 Mau의 구어체 이다.

촌스러운이라는 뜻을 표현할 때 Gaya Kampung (시골 스타일) Kekampungan 을 종종 사용합니다. Norak은~ 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촌스럽다 (Sangat berlebih-lebihan). 라는 표현으로 색

이 너무 튀어 매칭이 안돼서 촌스럽거나 화장등이 어울리지 않게 촌스러울 (Kurang sesuai) 때 사용합니다.

Contoh kalimat : 예문

**Norak**  
**Di siang terik seperti ini, dia berpakaian norak pantas orang menertawakannya.**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날에 우스운(튀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한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 거리가 될만하다.

**Kekampungan**  
**Meletakkan kaki di atas meja itu adalah sikap kampungan.**  
 책상위에 발을 올려놓는 행동은 촌스러운 행동이다.



## 다양성 속의 통일



한 경 순  
(인터넷공모전 특별상 수상자)

여행을 떠나는 기쁨으로 두 가지가 있다. 미지의 공간에 도착하여 설레임 속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과 여행 중에 만난 인연으로 귀한 새 친구를 얻는 기쁨이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만난 친구, 여행길에 만난 친구는 그래서 좋다. 241번째 계획된 문화탐방지는 모나스~국립박물관~임마누엘교회~Ragusa 아이스크림~ Cemara 갤러리다. 각 탐방지마다 다양해서 더 아름다운 인도네시아를 느낄 수 있었다. 새 친구와 함께.

먼저 도착한 Monas 국립 기념탑은 독립을 기념하는 상징적 탑이다. 자카르타의 가장 중심 부분에 위치하며 음양, 선과 악, 밤과 낮, 남자와 여자를 뜻한다. Monas 기념탑의 가로·세로 폭과 높이를 보면 네덜란드 지배 하에서 독립한 1945년 8월 17일 기념일에 대한 상징과 염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루다 국장에 묘사된 뾰족실라의 구성 역시 목 부분의 45개의 삼각 깃털과 양쪽 날개 17개, 그 밑에 8개의 날개로 모두가 독립 기념일과 그 해 45년을 상징한다. Bhinneka Tunggal Ika라는 글씨는 인도네시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뜻한다.



국립박물관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다양성과 통일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다. 1층 전시관 오른 쪽의 종족구성 지도를 보면 2억 5천이란 인구가 자바인(41%) 순다인(15%) 말라카인(41%) 중국계, 마두라, 바딕 등 300여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17,000개의 섬에 분포되어 한 국가를 이룬다. 이들의 종교 또한 이슬람 87% 기독교(개신교 6% 가톨릭) 힌두 불교 유교 등 5대 종교를 인정하는 것을 일 년 달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모든 종교 창시자에 대한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기념일을 공휴일로 정해 다양성과 통일을 지킨다. 2층 3층 유물에서도 다양한 인도네시아를 알 수 있었다.



문화탐방의 일정 중 가장 자유로운 점심시간을 맞아 찾아간 곳은 역시 맛과 멋 그리

고 문화를 겸비한 전통 음식문화의 공간이었다. JL.Veteran에 위치한 Dapur Babah는 중국인 전통의 붉은 색으로 테이블보로 쓰여 있었고 의자와 벽기둥 장식들은 동남아 5개국 신들을 사방에 벽장식으로 치장하였다. 인도네시아, 중국, 네덜란드 음식 문화의 대향연이었다. 역시 다양함 속에 통일이란 문장의 의미가 실현된 곳이다.



Ragusa ice cream (JL. veteran no. 10)은 이탈리아 사람 이름 Luigie Ragusa, Vincenzo Ragusa 형제에서 유래 된 이름이다. 1933년 자카르타 1호점을 운영하면서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이 유명한 점포 입구엔 아이스크림을 사기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먼저 맞이하는 포장마차 사뭇(꼬치구이) 오딱오딱(어묵구이) 가도가도(야채섞음) 미고렝(국수볶음)등이 있다. 역시 다양함을 이루는 음식문화가 같은 거리에 함께 공존하는 다양한 삶을 읽을 수 있었다.

#### Gereja Immanuel (임마누엘 교회)

1834년~1939년에 건립된 임마누엘 교회는 설립 목적이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기독교 신자들의 종파를 통합시키기 위해서였다. 즉 다양성 속의 통일을 실현하는 곳이다. 성마리아 가톨릭 대성당과 이스띠깔 이슬람 사원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감비르 (Gambir) 기차역을 향하고 있으며 모나스 광장 주변으로 둥그렇게 모여 있다. 타종교 건물들이 가까이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역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실현하는 곳이다.

문화 탐방의 여정가운데 보고, 듣고, 관찰한 건축물과 유물들 그리고 역사의 흔적을 꼼꼼히 보며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단일 민족, 백의민족임을 자랑하며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다른 민족성을 지녔다. 수 백 개의 종족과 언어, 그 다양함 속에 음식문화, 생활습관, 종교 등 다문화 속에 융합하여 하나 된 국가를 형성한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 내면엔 민족성의 위대함도 숨어있다. 타 문화에 대한 배려, 인정, 신뢰, 그리고 내 것을 타인에게 강요, 주장하지 않는 겸손 등이 생활화되어 있다. 즉, 내 것만이 최고라는 결론보다는 타인의 것에 대한 배려가 지금까지 이 넓고 큰 도서 국가를 형성하여 올 수 있게 된 힘이 아닐까.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 다 문화 가정과 다 문화에 대한 배려를 계몽하고 있다. 워낙 단일민족으로 하나 됨에 강했던 우리 민족이기에, 나와 전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인색하다. 그러나 이젠 변화해야 할 것이다. 세대는 글로벌 시대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타인을 인정해야, 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을 배려하고, 신뢰하고, 그들이 이루어 오고 있는 음식 문화, 생활 습관, 종교 문화 등을 이해하지 않고 융

합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적응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마음을 열고 바라보자.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며 더욱 아름다운 인도네시아로 느껴질 것이다. 우리 뇌의 구조는 긍정적으로 임할 때 긍정의 효과를 얻는다. 부



정은 곧 부정을 낳고 나아가 흡수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다양함속에 하나 됨을 이루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는 배풀며 배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인니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을 세계에서 우수하고 월등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국민으로 바라본다. 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부를 가졌다고 판단한다. 그러기에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인니 사무실 직원이나 주변 이웃들이 스스럼없이 도움을 청한다. 당연히 도와 줄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처음엔 그런 청을 받으면 당황하고 거부감을 느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이런 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정'에 약해 야기되는 문제도 종종 있다. 정에 약한 사람이 마음먹고 주려 하면 간도 빼주려 하지만 여기 사람 속담에 "간을 빼 주었더니 심장을 달라한다"는 속담이 있다. 도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습과 자기 훈련을 통해 인니 생활 적응에 달인이 되어 보자. 다양한 속에 하나 되는 연습을 해 보자.

문화 연구원에서도 나눔의 문화는 실천되어지고 있다. 241회가 지나도록 사공경 원장님은 열정과 사랑으로 인도네시아 문화를 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탐방 길에 오르지만 그는 늘 많은 간식과 음료를 손수 준비하여 안내 책자 및 명소에 대한 정보까지 꼼꼼히 준비하여 감동과 사랑을 나눠준다.

문화 탐방에서 건물을 보고 역사를 외우고 인물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 탐방을 통해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라는 공감대로 하나 되어 나눔을 배운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역사의 발자취 속에 살아있는 문화를 후세들이 누리고 사는 감사를 얻는다. 그럼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역사와 문화의 '점'을 찍으며 후세들에게 어떤 문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 어디서 호흡하고 있으며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나 되는가? '점' 하나가 모여 선을 이루고 모나스 역사박물관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의 불씨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고 독립 국가를 이루었듯이 문화연구원의 문화 탐방은 역사의 발자취를 이어가며 하나의 '점'이 모여 선이 되고 면이 되어 인니 속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2013년 10월 12일



# 아침 마리 새를 위한 즉흥곡

- 새이

시 : 박정자  
그림 : 이태복

여기까지 오는 길  
늘 기운차서  
달리고 구르는 신바람 아니었어  
그보다는 날개 꺾일 것 같은 흠바람이었어

피리 하나 만들었죠  
거칠게 몰아치는 먹장구름 바람이라도  
내 피리 속에서 다시 나을 때쯤엔  
푸르고 싱싱한 솔바람 되는

나는요 큰 나무 가장 높은 꼭대기에 앉아  
아침부터 밤까지 피리 불고 싶어요  
어지럽게 휘도는 먹장구름도  
신나는 음표로 바꿔놓고요

날개 위 몇 줄기 바람  
뜨거운 당신 이마에 살려서 풀어놓고요

박정자 1991년 등단  
시집 <그는 물가에 있다> 등 6권  
현재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부지부장,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 ■ ■ CNN이 선정한 한국 꼭 가봐야 할 곳 50

### 23. 경주 안압지

이 인공호수는 1,500여년전 신라시대때 만들어졌다. 세개의 건물들이 세개의 인공섬에 세워져 있고 작고 예쁜 연꽃들이 호수 주변을 꾸며주고 있다. 밤의 불빛들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26 >>



### 24. 세량제

화순에 1969년에 지어진 저수지인 세량제는 사진작가들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포토제닉 명소이다. 봄이 되면 연분홍빛의 벚꽃과 초록의 나무들이 수면 위에 그대로 투영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 25. 광한루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 동화 춘향전의 배경인 광한루는 춘향과 몽룡이 사랑에 빠진 곳으로 1963년 보물로 등재되었다. 사진작가들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기 위해 가는 곳이기도 하다.

전북 남원시 천거동 77-1 >>



## 26.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군이 버려진 기차역을 아름다운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관광객들은 짧지만 흥미로운 기차여행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면서 로맨틱한 기차역 주변을 거닐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70-5 >>



## 27. 청산도

크기는 꽤나 작지만 청산도는 한국 최초의 슬로길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 시티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하여 슬로길이라고 이름붙여진 곳으로 전체 11코스로 그 길이가 100리 정도에 달한다. 섬 전체가 하나의 전래동화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숨겨진 명소.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 28. 한라산

한라산의 아름다운 눈꽃들과 고드름이야말로 한라산 눈꽃축제의 완벽한 배경이 되었지만 지리적 특성상 축제 기간 중 눈이 내리지 않은 이유 등으로 폐지되었다. 축제는 폐지되었지만 눈꽃들로 장식된 나무들은 그대로이다. 축제를 통해 즐기지 않아도 썰매를 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눈꽃을 즐길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





## 책갈피 속 단풍잎의 추억



서미숙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감사)  
gaeunsuh@hanmail.net

**고**국의 가을, 만추의 서정에서 잊고 있던 시절의 아련한 추억 한 자락을 건졌다.

책장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책들을 펼쳐 보다가 어느 유행가의 노랫말처럼 가을을 남기고 간 추억 한 조각을 말이다. 책갈피 속에 곱게 끼워져 있는 빛바랜 단풍잎 두 어장이 숨 막히다 는 듯 페이지 사이에 가지런히 끼어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형체는 그다지 변하지 않은 채 나의 이야기를 기억해 달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미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서른 해가 더 지난 지금까지 두 장의 잎이 헤어지기 싫은 듯 미라가 된 팔을 서로 맞잡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찡해져왔다.

단풍잎을 가만히 코끝에 대보니 얇은 잎 새는 비좁은 책갈피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갇혀 지내다 휴우~ 하고 심호흡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알싸한 세월의 향기에 가슴이 시려온다. 가을은

단풍이 있기에 더욱 화려한 계절이었지, 금수강산이라는 말의 어원도 단풍든 아름다운 산야를 두고 이르는 말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돌아보게 하는 계절이어서 가을을 유난히 좋아했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교정의 나뭇잎이 온통 붉게 물들던 여고 2학년 가을 이었다.

일사귀마다 색깔이 서로 다른 단풍잎을 수집하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다. 세상의 붉은 색이란 붉은 색은 죄다 모아도 한그루의 단풍나무를 꾸미기 어려울 거라며 단짝이었던 친구와 책갈피를 모두 단풍잎으로 채웠다. 우리는 서로 손가락을 걸며 두 장의 단풍잎을 나란히 책갈피 속에 끼우며 변치말자고 우정을 약속했었다.

솔 베이지송(Solveig's Song)을 잘 불렀던 그녀는 하이네시집도 항상 손에 들고 다녔다. '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그 여름 날이 가면 더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아! 그러

나 그대는 내 님일세 내 님일세, 내 정성을 다하여 늘 고대 하노라 늘 고대 하노라.’ 아마도 이런 내용의 가사였던 걸로 기억이 된다.

서정적인 이야기 속에 흐르는 모험과 슬픔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솔베이지송의 구슬픈 음악이 내 귓전을 울리고 있는 것만 같다.

그때의 책이 지금까지 내게 남아 있다는 사실도 벽찬 감동인데 우리가 모은 단풍잎까지 그대로 끼워져 있다니, 빛바랜 단풍잎사귀지만 내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보물 하나를 찾은 듯 반갑기 그지없다. 마른 단풍잎에서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왔다.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길 좋아했던 나의 친구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다. 얼굴은 하얀 달빛을 닮은 듯 늘 창백해 보였다.

분홍색 조각달이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녀의 소원은 무엇이 있을까. 그해 겨울, 첫눈이 오기 전 먼 시골로 요양을 간다고 단풍잎이 끼워진 시집을 내게 선물하며 학교를 떠났던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살아 있거나 한 것일까? 그녀도 지금쯤은 그때의 우리만한 딸아이의 엄마가 되어 가끔은 나를 생각해 줄까? 딸에게 봉숭아물을 들여 주며 여고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는 곱상한 여인으로 어디에서든 잘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만추의 서정을 간직한 가을 풍경은 빛바랜 단풍잎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 손짓하게 한다. 가을은 빛깔을 통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다.

떨어지는 이파리를 두고 흑자는 떠날 때를 알고 돌아서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다고 했던가. 떨어지는 단풍잎은 그 잎대로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 일거다.

어떤 시의 구절에 보면 단풍으로 불이 붙을 것 같은 금강산엘 가면 온몸에 화상을 입는다고 표현했다. 붉은 단풍으로 눈이 부시다 못해 온몸을 데일 것 같다고 했으니 얼마나 멋스러운 과장법인가. 캐나다의 한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곳에서는 벽난로용 연료로 단풍나무 장작을 최고로 친다. 화력이 좋고 연기가 나지 않으며 그윽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 파르스름한 불꽃의 색깔이 아름답고 타고 남은 재의 흰색이 곱다고 했다. 더구나

장작을 태우면 향기가 좋아 귀한 손님이 올 때면 반드시 단풍나무 장작으로 불을 붙인다고 한다.

내 기억 속에는 또 하나의 단풍이 있다. 대학시절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파리에서 가져왔다고 기념으로 주신 마로니에 잎 한 장이 그것이다. 몽마르뜨 거리에서 주워온 노란 마로니에 단풍. 그 마로니에 잎을 유리액자에 넣어 내방 벽에 걸어두는 집에 찾아온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다. 예술의 도시 파리를 동경했던, 또 유럽의 문화에 호기심이 많았던 대학시절이었기에 그 나뭇잎 한 장에 단풍잎이 흩어져 날리는 파리의 정취가 남아 있기도 한 듯 소중하게 여겼다.

단풍나무를 한자로 나무 목(木)번에 바람 풍(風)자를 더해 단풍 풍(楓)으로 쓴다.

단풍나무의 열매가 프로펠러처럼 생겨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풍(風)자와 목(木)자를 합쳐 단풍 풍(楓)자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나뭇잎은 찬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붉게 물들기 때문에 단풍(丹楓)이라 했을까.

그 시절, 내가 그렇게 아꼈던 단풍잎은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단풍잎을 통해 내게 이별의 아픔을 알려주었던 여고시절 나의 친구는 우리의 책갈피 속 단풍잎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마로니에 단풍으로 대학시절 문학의 깊이를 가르쳐준 그때의 교수님도, 단풍잎을 함께 모으던 그때의 친구도 지금은 그저 책갈피속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다. 모두가 가을 낙엽처럼 다 떠나고 내 곁에 없다.

이렇듯 가을이면 내 눈을 단풍잎처럼 붉게 물들이고 있을 뿐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신적 신전

## 국립박물관 Museum Nasional

고고학 보물전시관 전편후편(신관4층)

사공 경(한\*인문화연구원장/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장)

**신**관 4층 고고학 유물전시관은 말 그대로 고고학적으로나 민속학적으로 가치 있는 귀금속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황금의 나라, 신라’의 찬란한 금속 공예를 떠올리게 한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금·은 소장품이 3,450점(구관 2층+신관 4층)에 이르며 대부분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금은 화학약품으로도 부식되지 않아 장식, 의식용으로 더 나아가 역사적 자료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 황금색은 비옥과 부유, 행복을 상징한다. 특히 국립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수집품은 보물로 분류된다. 이 박물관에는 보석으로 만든 수집품도 많다. 옛날부터 수마트라와 자바 섬은 금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힌두-불교가 인도네시아에 전파된 시대 때 두 섬에서 금이 많이 채취되었고, 아랍과 중국, 말라카반도에서 상인들이 이곳으로 금을 많이 가져왔다. 지금까지도 국제 통상로가 된 수마트라와 자바, 술라웨시, 칼리만탄 섬이 금과 은의 수공업 중심지이다.

신관 4층 힌두-불교 왕국의 고대 유물관 (기능과 역사별)

4층의 전시품들은 힌두-불교 시대인 8세기-15세기에서 유래된 고대 유물들이다. 전시품 중 제일 중요하고 멋진 유물은 중부 자바의 워노보요(Wonoboyo) 마을과 동부 자바의 무뜨란(Muteran) 마을에서 발견된 보물이다.

## I. 워노보요 (Wonoboyo)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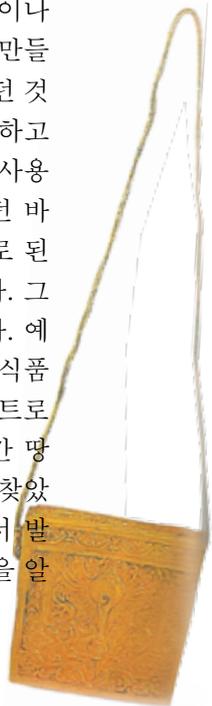
1990년 10월 17일, 족자에서 가까운 끌라텐(Klaten)의 위노보요 마을에서 꺾또 수와르노(Cipto Suwarno)씨가 수로를 만들고 흙을 팔기 위해 땅을 파다가 브라빠 화산 폭발로 10세기 초 용암에 속에 묻혀있었던 유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우연하게 시작되었다. 지하 2.75m에 중국의 당나라 항아리 4개가 청동으로 된 큰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유산은 9세기 왕조의 것이라 추정된다. 그 안에 들어 있었던 유물은 왕이 사용했던 장식품과 액세서리, 의식장비였다. 유산으로 가득한 도자기의 무게는 35kg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중 6396개의 금동전과 600개의 은동전 보물은 국립박물관에 보관되고 항아리와 상자는 족자의 유산 보존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20세기 최대의 유물이 발견된 장소 명(名)을 따서 위노보요 보물이라고 한다. 이때 발견된 동전은 막 'mak' 이라고 한다. 큰 단위인 금으로 만든 옥수수 씨앗 모양의 동전과 작은 단위인 은으로 만든 바늘 모양 동전이 있다. 그 시대에는 착용하는 보석류도 많았다. 귀석과 금으로 된 액세서리가 제일 고급스러운 것이라고 한다. 힌두-불교 사회에서 금은 사치스럽고 비싼 것임으로 금 유물을 통해 왕족과 귀족의 일상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금은 사회 지위를 보여주기도 한다.



많이 사용한 액세서리는 목걸이와 반지, 팔찌, 귀걸이, 머리쓰개, 가슴과 허리에 착용하는 것이었다. 전시된 가슴에 착용하는 액세서리 중에는 초승달 모양의 단순한 형태에 식물 문양이 화려하게 새겨져 조화를 이루는 것도 있다. 힌두-불교 시대 종교적인 의식 등을 행할 때 사용했던 접시와 대접, 바가지, 우산 등의 장비들도 전시되어 있다. 마따람(Mataram) 왕이 시마(sima) 의식을 행할 때 번성한 마을에 돌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금·은 동전을 하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우산 꼭지에 장식이 있는 뿌쭉 뺨응(pucuk payung)은 권력을 상징한다. 양산의 끝 부분이 손잡이가 없는 '까만달루(kamandalu)'란 물 주전자 모양이다. 그 물 주전자 모양 끝 부분에 막 피어나려는 연꽃이 예술적으로 장식되어 있다. 라마야나 그릇(Mangkuk



Ramayana)은 그 명칭대로 라마야나 서사시에 쓰인 라마(Rama)와 신따(Sinta)의 사랑이야기와 라와나(Rahwana)와 싸움에 대한 선과 악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그릇의 외부 전체에 조각되어 있다. 이 그릇은 위노보요 보물의 최고의 걸작이다. 앵무조개를 닮은 역시 금으로 장식된 야자수의 잎을 나타내고 있는 물바가지도 품위로 보나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나 의식용임을 알 수 있다. 금으로 된 국자는 잎사귀 무늬로 꾸며져 있고 손잡이에는 자바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깊은 단지 안에 있는 시럽이나 코코넛 설탕을 뜰 때 사용했다. 타출기법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금 가방은 힌두교 경전을 담았던 것으로 추측한다. 삶의 저편 너머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위노보요 보물 중에 무기로 사용했던 꼬리수도 있다. 그 외에 왕족이 사용했던 바가지와 숟가락, 부적을 담은 지갑, 금과 은으로 된 잔과 그릇 등 왕궁과 관련된 유산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용도와 기능을 알 수 없는 수집물도 많다. 예를 들면 금도금으로 된 긴 관과 나선형 금 장식품이 그것이다. 약 170년 전 독일의 쉘리만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실린 책 한권으로 수천 년간 땅속에 묻혀 있던 과거의 도시, 트로이(터키)를 찾았듯이 인도네시아에도 제 2의 쉘리만이 나와서 발견되지 않는 유물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기능을 알 수 없는 유물을 해독할 날을 기대해 본다.



## II. 무뜨란 (Muteran) 보물

1881년 동부 자바의 무뜨란 마을에서 한 농부가 땅을 갈다가 우연히 금과 은, 그 외의 보물을 발견했다. 이 유산은 지상뿐 만 아니라 지하 1.5m에 묻혀 있다가 발견되어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보물이 들어 있던 청동 통도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우연'이 역사에 방점을 찍는 순간이다. 이 유산은 역사적이고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로 9세기~14세기에 유래된 보물로 추정된다. 10세기 유래된 금으로 된 어깨걸

이는 때로 침묵한 힘없는 어깨 위에서 용기로 빛났을 것 같다. 그 외에 동부 자바의 모조끄르또(Mojokerto)에서 발견된 거울에는 외로운 영혼의 남자가 그려지기도 한다. 과학자이자 역사가인 프랑스인 Louis Charles Damais가 은접시에 있



는 문자를 해독한 결과 그것은 775년-825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뜨란 마을 부근, 동부 자바의 틀로울란(Trowulan) 유적지에 브라후(Brahu)와 끈똥(Gentong)이라는 불교사원이 발견되었다. 건축양식으로 미루어 보아 브라후 사원이 1410년-1446년에 건축되었다. 끈똥 사원도 같은 시대에 건축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연유로 워노보오와 달리 무뜨란에서는 불교 신 조각상이 많이 발견되었다. 무뜨란 보물은 완장과 머리핀, 왕

관, 목걸이, 허리띠 등의 보석과 의식 장비로 분류된다. 권위를 상징하는 완장은 문양이 진주로 된 꽃 모양과 닭알고 가장자리에는 덩굴손과 구슬로 다양하게 장식되어 수채화를 그리고 있다. 덩굴손은 비옥한 자바를 상징한다고 한다. 양산을 쓰고 있는 정교한 잠발라(Jambhala) 석상도 있다. 잠발라는 불교에서 부유의 신이고 힌두교에서 꾸웨라(Kuwera)라고도 알려진다. 불룩한 배와 부유를 상징하는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석상의 특징이다. 예나지금이나 재물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재물 같은 형상의 세계는 허위의 그림만 그럴 뿐인데도.

### III. 왕궁 금 보물

대부분 땅에 묻혔다가 발견된 유산들이지만 왕궁에서 보존한 유산인 레갈리아(regalia: 왕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유산)도 많이 있다. 16세기 때 왕이 레갈리아를 손자에게 물려주었다. 레갈리아에 백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사와 이름, 영적인 힘을 가진 글씨가 적혀있다. 전쟁에 패배하면 레갈

리아는 승리한 왕국으로 넘어간다. 족자 왕궁을 제외하고 몰락한 왕궁에서 레갈리아를 가져와서 국립박물관에서 보관 전시한다. 서부 자바의 반튼(Banten), 남칼리만탄 반자르(Banjar), 동자바 방갈란(Bangkalan), 팔렘방(Palembang), 잠비(Jambi), 리아우(Riau) 왕국의 빼앗긴 레갈리아가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예를 들면 전시된 의식용 부채(Jogan)는 리아우 Lingga왕국의 레갈리아이다.



1913년 이전에 많이 사용한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부채로 왕손에 대해 아랍문자로 적혀있다. 아픈 역사지만 이곳에서 유물을 통해 생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것 같다.유산과 레갈리아 외에 군사가 탐험하여 수집한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할 때 술라웨시의 고와(Gowa)와 발리의 바둥(Badung: 발리의 왕궁), 롬복, 칼리만탄, 아제 등 지방 왕국과 전쟁 때 각 왕궁의 유산과 액세서리를 빼앗아 네덜란드로 가져갔다. 하늘에서는 이름모를 별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네시아의 국립 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을까. 국립박물관이 건축되기 전에 네덜란드 과학자가 군사 탐험 수집물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유산을 인도네시아에서 연구했기 때문이다.

힌두교-불교 왕국 시대 후에는 이슬람교 시대가 인도네시아를 발전시켰다. 반튼(Banten) 왕국에서 유래된 왕관과 시리(sirih)를 먹을 때 사용했던 코코넛 껍질로 된 접시, 타구(唾具) 등의 유산도 전시되어 있다. 시리를 씹는 풍습은 사회활동이나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독제 역할 외에 예절과 친절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 꼭 준비해야한다. 은으로 만들어진 찌르본 왕족이 소유했던 비틀 너트 세트(Betel-Nutset)도 있다. 시리처럼 비틀 너트를 함께 씹으면서 일체감을 느꼈다고 한다. 우리처럼 정(情)이 많은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자바와 발리 남자들이 사용하는 크리스크도 전시되어 있다. 크리스크는 그들의 자존심이다. 힌두교를 믿는 발리는 크리스크의 손잡이에 힌두교 신의 조각이 있으며 금으로 만들어졌다. 반면, 자바 크리스크는 이슬람교 영향을 많이 받아 크리스크 손잡이가 나무나 뼈로 만들어졌다. 이는 무슬림 남자들은 금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리스크 외에 창도 있다. 옛날에 창은 왕과 왕족 보호, 네덜란드 시대에는 선물용, 전쟁 무기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다. 손잡이가 금으로 덮여있는 창은 왕족과 선물용으로, 반면 금이 없는 창은 전쟁 때 사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자바 왕국에서 사용하던 금으로 된 판(평평한 접시)에 새겨진 계약서와 감사장이 있다.



사장이 있다. 밑에 도장이 찍혀 있으며, 경제와 무역에 관한 계약서이다. 벽에 금 장

식품을 주조하는 다양한 방법이 포스트로 걸려 있다. 틀에 부어 굳히거나 납땀하거나 타출기법을 사용하는 등이다. 샤일렌드라 (Syailendra) 왕조에서 유래된 불교 사원인 보로부두르 사원에 있는 북쪽을 다스리는 아모가시디 (Amogasidi), 남쪽을 다스리는 랏나삼바와 (Ratnasambhawa), 서쪽의 아미따바 (Amithaba), 동쪽의 악소비아 (Aksobhya), 중앙의 와이로짜나 (Wairocana), 이렇게 다섯 불교 신이 포스트로 전시되어 있다. 그들의 손의 모양이 지구를 가리키고 이는 불행을 막는 와라무드라 (Waramudra)라고 한다. 이처럼 미지의 기호를 가슴에 안고 자위(自衛)하며 사람들은 살아간다.

금종이에 적힌 신의 말씀에는 무엇이 적혀있는지 궁금했다. 종이금박을 자르는 가위(Kacip)도 금으로 되어있었다. 재래 시 사용했던 금으로 된 예쁜 물바가지 끝에는 힌두교와 불교를 상징하는 장식기가 있다. 머리만 가리는 은제 우산도 재미있었

다. 금장식으로 꾸며진 야자열매, 금으로 된 머리장신구, 루비로 장식된 파이프, 금으로 된 파티용조끼, 루비가 박힌 물병, 그 외에 장례식 때 사용한 목주, 금으로 된 과일 모양의 장식품 등도 전시되어 있다.

왕족뿐 만 아니라 동물도 액세서리를 착용했다. 가네샤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 코끼리가 금 목걸이를 하고 있다. 옛날 왕들이 비둘기 다리에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했다고 한다. 왕국의 상징이 된 동물로는 사자와 용이다. 평평한 콩처럼 생긴 까짱 꼬로 (kacang koro), 메기 (lele), 달팽이 (siput) 모양으로 엮어서 만든 목걸이처럼 왕의 권력을 표시한 도장으로 된 반지도 전시되어 있다. 귀걸이 마물리 (Mamuli)는 쉼바 (Sumba)의 귀족에게 중요한 유산이자 혼수로 사용되었다. 모양이 여성의 성기이며 비옥을 상징한다. 또 순백으로 살고 싶은 순결을 의미하는 도구와 이빨을 닦는데 사용한 기구도 재미있다. 금으로 된 의자, 벨트, 상자도 있다. 왕족들은 명상을 할 때도 팔장식품, 발찌, 금으로 된 연꽃 등으로 의례를 갖추었다고 한다. 고대 마따람 (Mataram)과 마자빠히트 (Majapahit) 왕족이 착용했던 장식품도 전시되어 있고, 그들이 장식품을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착용했는지 보여주는 그림도 벽에 걸려 있다. 왕족들은 몸에 전부 다 금으로 된 액세서리로 치장을 했다. 이처럼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면 고대인들과 현대인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오늘 유물이 아니라 삶을 보고 간다. 주인인 지배층과 유물을 만든 피지배층은 지상에 없지만 삶은 유물과 함께 남아있다.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전시품 하나하나가 멀리는 1300년 전의 힌두-불교 시대의 지배층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유물은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도 있고 개개인의 마음에 집중한 유물도 있다. 또한 영광스럽고 화려한 역사뿐 아니라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도 이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더불어 사슬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진실한 삶의 몸짓으로 유물을 만든 피지배층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던지고 싶다. 모든 인간이 내밀한 사랑으로 왔듯이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 아무리 슬픈 시대에도, 박물관은 유물을 통해서 과거가 미래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 그들은 진정한 삶을 살았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유물들은 '진정한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나는 오늘 삶과 죽음을 보고 간다.  
참고문헌(국립박물관 신관책자)

### Museum Nasional

Jl. Merdeka Barat No.12 Jakarta Pusat  
Tel : 3811551 / 3447778  
화 - 금 : 08:30-16:00  
토 - 일 : 08:30-17:00  
월, 공휴일 : 휴관  
입장료 : Rp 5000 (성인), 2000 (어린이)  
/ 외국인 10.000  
한국어 가이드: 셋째 토요일 9:30 (접수 인도웹)

### 사공경

(0816-190-9976 / (+62 21) 794 1963 /  
Email : sagong@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Yayasan Kebudayaan Harapan Antar Bangsa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Jl. Taman Margasatwa No. 3,  
Busway SMK 57 Ragunan, Jakarta Selatan

Tel. (+62 21) 7883 9597  
Fax. (+62 21) 7883 9598  
Email apakabarindonesia@hotmail.com  
jalanjalanindonesia@ymail.com (문화탐방)  
lovekoin@hotmail.com



**문화과 사랑, 사랑들  
-이 아름다운 저녁-**

오만 가지 꽃이 피는 들뜰에서 우리가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의 죽도 모르고 물어 두었던 이야기들이  
꽃으로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저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계 : 2013년 11월 7일(목) 6시  
어디서: 한국문화원  
무엇을: 한국문화 기부 이주식, 출판기념회,  
시낭송, 시회견 외  
누가: 한국문화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우리는 서로 길을 꽃이어서,  
들뜰의 어느 한 길에서 계절이 아름답습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꽃들이 모두 모여 계절을 더는  
아름다운 들뜰에 서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특별하길  
PT. KIDECO JAYA AGUNG  
PT. Bosung Indonesia



## 계약법 (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mailto: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 6. 계약의 종류

민법에 나타난 계약의 종류는 유명(有名) 계약 과 무명 계약 두 종류가 있다. 무명계약이란 민법에 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사 회구성원 간의 제 계약을 뜻하며, 민법에 나와 있 는 유명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파트너 실, 법인, 증여, 임치,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종신통기금, 현상계약, 채무보증 및 화해, 이상 15 종류가 있다.

### 7. 매매 계약

Seller와 Buye 간에 매매에 합의하면 양측에 각 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Seller는 파는 물건 의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다음과 같 은 의무가 있다.

7.1. 매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매매 의사를 밝힌다.

7.2. 파는 물건을 Buyer에게 양도한다. 판 물건을 양도하는 방법은

i). 판 물건이 동산인 경우에는 판 물건에 대한 장 약권을 양도한다.

ii). 판 물 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Buyer가 해당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관공서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매매 혹은 권리변경 증서를 양도한다.

iii). 채권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양도는 양도증서 로 양도한다.

7.3.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으면

i). 인계에 들어가는 경비는 Seller가 부담하고 인수에 들어가는 경비는 Buyer가 부담한다.

ii). 인수인계는 매매하는 물건이 매매 합의 시 위 치해 있는 장소에서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iii). Buyer가 물건 대금을 완불하지 않으면 Seller 는 파는 물건을 인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7.4. 판 물건에 매각 당시 알려지지 않은 하자가 발견 시에는 Seller는 Buyer가 지불한 물건 대금 및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예” 를 들면 자동차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차를 운전중인데 엔진에 결함이 있어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갑자기 꺼지고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에 오는 차가 추돌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판 회사는 Buyer에게 자동차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이 추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 국제 매매에 관한 1980. 4. 7. 자 UN 협약 제30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된 Seller의 3대 의무

- A. 파는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
- B. 파는 물건에 관한 관련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 C. 파는 물건의 소유권을 Buyer에게 다음과 같이 인계해야 한다.
  - C.1. 파는 물건이 수송을 요하는 경우에는 Buyer에게 인계하도록 수송업체에게 1차로 인계한다.
  - C.2. 수송되는 물건에 대한 명세서를 Buyer에게 보낸다.
  - C.3. 파는 물건을 계약한 일자에 맞춰 인계한다.
  - C.4. 파는 물건의 수량, 품질 및 포장을 계약한 대로 인계한다.
  - C.5. Buyer가 특정 조건으로 물건을 산다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삼자로부터 여하한 클레임도 없는 상태의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
  - C.6. 파는 물건이 여하한 지적재산권상의 위반이

나 클레임이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

\* 국제 매매에 관한 1980. 4. 7. 자 UN 협약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에 규정된 Buyer의 의무

- A. Seller로부터 산 물건을 검사해야 한다.
- B. 계약한대로 물건 대금을 Seller에게 지불해야 한다.
- C. 계약한 물건을 인수해야 한다.

## 8. 임대차 계약

8.1. 임대차란 동산 혹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며 그 사용에 대하여 사용비를 지불하기로 임대자와 임차자간 에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무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무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관행상 서면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자에게 유리하게 준비된 임대차 계약서가 널리 쓰여지고 있다.

8.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

- 8.2.1. 임대차 계약 체결 일자
- 8.2.2. 임대차 및 임차자의 자격 및 인적 사항
- 8.2.3. 임대차 목적물(사전에 부동산 등기권리증서 원본을 확인한다), 규격 및 부대시설물 표시
- 8.2.4. 임대차 기간
- 8.2.5. 임대차비 및 지불 조건
- 8.2.6. 임대자의 권리 : 임대비와 임대 보증금을 임차자로부터 받는다.
- 8.2.7. 임대자의 의무 : 임차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물을 넘겨준다.
- 8.2.8. 임차자의 권리 :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아무런 방해없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8.2.9. 임차자의 의무 : 임대차비와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차 목적물을 선의로 보호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가 종료되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8.2.10. 벌금 : 임차자가 임대차비 지불 기일을 어기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지연 시 벌금을 지불한다.

8.2.11. 해약 조건 : 임대자 혹은 임차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 시에 상대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 조건을 기재한다.

8.2.12. 화재 보험 부보 : 화재 발생 시 임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자기 비용으로 화재보험에 부보토록 한다.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는 임대자의 책임이다.

8.2.13. 제세공과금 :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에 관한 세금, 재산세는 임대자가 부담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에 관한 공과금은 임차자가 부담한다.

### 8.3.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책임 소재

민법은 임차자의 잘못이 없는 임대차 목적물 훼손 시 그 책임 소재와 사후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3.1. 임대차 목적물이 완전 훼손 시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실효하며 그 복구 책임이 임대자에게 있으며 임대자가 손해를 감당한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 책임이 임차자에게 있을 때에는 임차자는 임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8.3.2. 임대차 목적물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임대차비 감액 혹은 임대차 계약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임대차물 부분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금한다.

## 9. 파트너십 계약

9.1. 파트너십이란 두명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형 재산 혹은 무형 재산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민사계약을 뜻한다. 흔히 볼 수 있는 파트너십의 형태는 변호사 사무소, 공인회계사 사무소, 메디칼 클리닉같은 전문분야 사업가들의 파트너십이다.

### 9.2. 파트너의 의무

9.2.1. 투자하기로 약정한 유형 혹은 무형 재산을 투자해야 한다.

9.2.2. 각 파트너는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한 수익을 파트너십에 보고해야 한다.

9.2.3. 각 파트너는 자기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파트너십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9.3. 파트너의 권리 : 출자 지분대로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9.4. 파트너와 제삼자 간의 관계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행한 파트너에게만 제삼자와의 관계에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파트너는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제삼자와 법률행위가 없는 파트너일지라도 제삼자와 법



불행위를 한 파트너에게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위임을 한 경우에는 위임을 한 파트너에게도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다.

### 9.5. 파트너십 종료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면 파트너십이 종료된다.

- 9.5.1. 파트너십 약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 9.5.2. 파트너십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파트너십을 하기로 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 9.5.3.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가 되거나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경우
- 9.5.4.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장기 와병으로 파트너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10. 위임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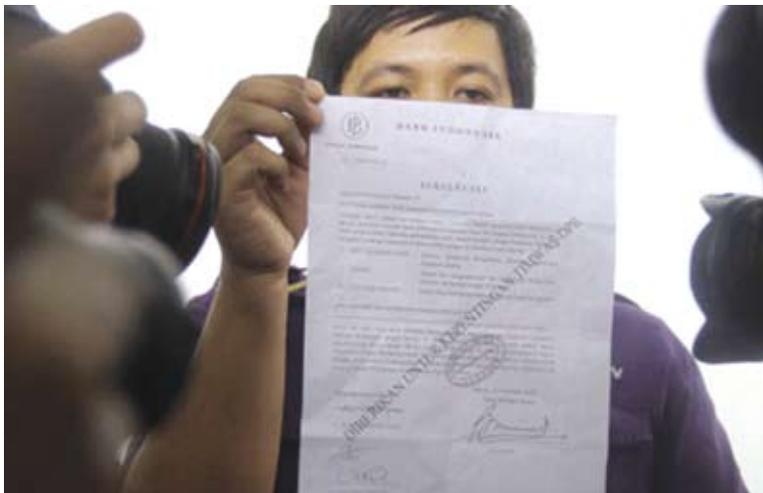
위임자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법률행위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하고 피위임자는 위임자의 명의로 위임받은 법률행위를 행하고 피위임자가 행한 위임자의 내용대로 행한 법률행위는 위임자가 책임지는 계약관계를 위임이라고 한다. 다시 설명하면 위임이란 당사자의 한 편(위임자)이 다른 편(피위임자)에게 위임자를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위탁하고 피위임자가 그것을 수락

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어떤 일을 처리한다는 뜻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일, 즉, 그 일을 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일의 처리를 뜻한다. 회사의 방대한 일을 사주 스스로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경영진을 선임하여 회사를 경영하게 하고, 경영진은 또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의 일을 보게 하는 경우나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자기의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주와 경영진의 관계, 경영진과 직원의 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과 변호사의 관계를, 법에서는 위임의 관계로 보며, 위임의 관계는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계약 관계를 발생시켜 위임장을 주고 받음으로 인해 위임자와 피위임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아는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친구에게 대리 참석을 부탁하고 친구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구를 대리하여 결혼식에 참석한 것은 법률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10.1. 위임의 종류

위임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종류는 공정증서 위임, 일반문서 위임, 구두 위임, 묵언 위임, 무료 위임, 특별 위임 및 일반 위임이 있다.

10.1.1. 공정증서 위임이란 위임자가 공증인 앞에서 피위임자에게 특정사항을 위임하고 위임사항을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한 위임관계를 뜻한다. 위임하는 내용이 적법해야 하며 법정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법정에서 최고의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 위임장을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는 자가 공정 위임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중요한 사항은 공



정 위임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 위임장에는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싸인은 보이지 않고 서명 날자, 증인의 성명 및 공증인의 싸인만 보인다.

10.1.2. 일반문서 위임이란 공증인을 개입시키지 않고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위임을 한 위임을 뜻한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위임 내용을 타자하고 정부수입인지를 부치고 서명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임은 일반문서 위임에 해당된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위임 방법이며 또한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분쟁 발생이 가장 많은 위임 방법이기도 하다.

10.1.3. 구두 위임이란 문자 그대로 서면이 아닌 말로 하는 위임이다. 손가락으로 피위임자를 가르치며 이 사람이 내 피위임자라고 가르치는 위임이다. 민법에서 구두 위임도 적법한 위임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면 구두 위임은 피하고 서면 위임이 바람직하다.

10.1.4. 묵언 위임은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았으나 처리된 일의 결과로 봐서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된 결과로 간주되는 위임을 뜻한다.

10.1.5. 무료 위임이란 피위임자가 위임받은 일을 반대급부 없이 무료로 처리한다는 위임을 뜻한다. 모든 위임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리하는 일에 대한 보수를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료 위임에서는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보수 지불 의무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위임자도 위임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 권리가 없다.

10.1.6. 특별 위임이란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뜻한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특정한 사항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주는 위임은 특별 위임이다.

10.1.7. 일반 위임이란 위임자의 모든 사항을 피위임자에게 위한다는 내용의 위임이다.

일반 위임은 관리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유에 관한 사항을 일반 위임으로 하는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 를 들면 위임자의 모든 재산 매각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피위임자는 이 위임장으로는 재산 매각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법에서 재산 매각 위임은 반드시 위임장에 매각 위임 재산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의 지번, 등기권리증서 번호, 등기권리증서 보유자 성명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 매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내 자동차 매각을 위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차종, 모델, 자동차 번호 및 차량소유 증명서 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일반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에 직접 서명하는 위임장도 무방하나 중요한 사항, 특히 매매에 대한 사항이나, 경영권 위임, 주주총회 참석, 저당권 설정, 양도 담보권 설정, 보증에 관한 위임 등은 위임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 그 영화 같이 볼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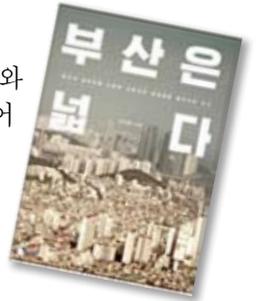
김영진等著 | 씨네21박스  
영화가 끝나고 시작되는 진짜 영화 이야기, 시네마톡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 우리에게 찾아온 서른 편의 특별한 영화들과 그 영화들로부터 탄생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를 만든 감독과 배우, 영화를

읽는 평론가가 관객과 함께 영화를 보고 감동과 의미를 나누는 시간의 기록이다. 제작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등장하고 배우들은 감독에게 말 못한 속사정을 털어놓는다. 방금 영화를 본 관객이 쏟아내는 의문에 감독은 고개를 가우뚱하기도 한다. 오가는 대화 속에서 모호한 장면과 대사들은 의미를 터득하고 지나쳐버린 지점에서 뒤늦은 감동을 되찾기도 한다. “극장을 나설 때 진정으로 시작되는 영화가 진짜 영화”라는 이동진 평론가의 말처럼, 각기 다른 6인의 저자가 다양한 시각으로 해부하는 서른 편의 영화는 영화를 본 독자에게는 또 다른 담론을, 아직 보지 않은 독자에게는 특별한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 부산은 넓다

유승훈 저 | 글항아리  
항구의 심장박동 소리와 산동네의 궁핍함을 끌어안은 도시



기존의 부산 책들과는 좀 다르다. 저자는 외부인이다. 그에게 부산은 낯설면서 매혹적이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가왕 자리에 오른 조용필이 ‘바위를 치더라도, 머리가 깨지든 바위가 깨지든 우선 들이대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부산에 부딪쳤다. 그렇게 깊숙이 개입한 외부인에 의해 부산이 그 속살을 드러낸 결과물이다. 부산의 산동네, 노래방, 부산 밀면, 조내기 고구마, 영도 할매와 같은 소재는 제도권 학문에서는 변방으로 밀려나 있지만, 이처럼 부산의 문화를 잘 비춰주는 거울도 없다.

## 감정은 습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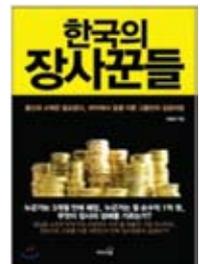
박용철 저 | 추수밭  
부정의 나를 긍정의 나로 바꾸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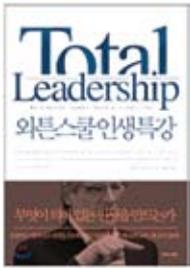
흡연이나 군것질 같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습관이 된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을 낯설고 불편하게 느낀다. 외로움 혹은 고독이란 감정이 습관이 된 탓이다. 걱정을 달고 살았던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고 걱정거리가 다 해결된 뒤에도 계속 불안해한다. 심지어 걱정거리가 없으면 일부러 걱정할 일을 만들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 불안이란 감정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처럼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한국의 장사꾼들

신동일 저 | 리더스북  
장사의 시대, 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가



밀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대한민국 대표 장사꾼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VVIP 자산관리팀장으로서 수많은 슈퍼리치들의 자산관리를 해온 저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인터뷰하여 좌절과 실패 끝에 일어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분석하고자 했다. 저자가 한국의 장사꾼들 17인의 성공 철학과 노하우는 이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 얻은 것인 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 와튼스쿨 인생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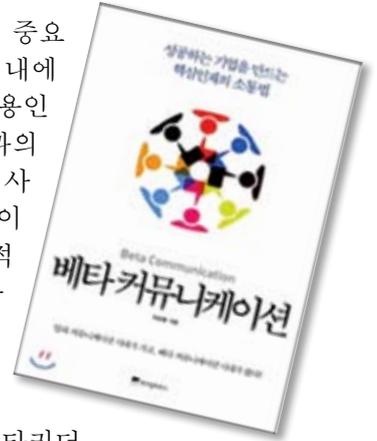
스튜어트 프리드먼 저/홍대  
운역 | 비즈니스북스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가

일과 인생을 ‘제로섬 게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산산이 깨트린다. 스텐워드 프리드먼 교수는 일의 성공을 위해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가치를 뒤로 하는 기존의 방식이 만족도와 행복감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조화롭게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 교수에 따르면 진짜 리더십은 개인의 삶 그리고 조직을 움직이는 방향키를 제대로 잡아내는 매개물이다. 조화와 균형을 통해 갈등관계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 나감으로써 비로소 삶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리드먼 교수가 말하는 ‘토틸 리더십’이다.

### 베타 커뮤니케이션

유승렬 저 | 위즈덤하우스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다원적, 수평적 소통 리더십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조직 내에서도 독단적인 태도는 더이상 용인되지 않으며 협력사 및 직원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베타 커뮤니케이션』은 이처럼 수평적 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베타 리더십’으로 칭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유효했던 하향식 방침과 명령에 의한 계층적 조직 운영 방식이 알파리더십이라면, 베타리더십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30년간 회사생활을 통해 직접 체득한 노하우로 코칭 및 컨설팅을 하고 있는 유승렬 벤처솔루션스 대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보다 ‘무엇을 할까’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주된 갈등이 커뮤니케이션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 나의 몫

파리누쉬 사나이 저/허  
지은 역 | 문학세계사  
이란에서 두 번이나 출  
판금지되었다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나의 몫』은 이란 여성들의 억눌린 삶을 대변하는 여인 마수메가 화자로 등장하여 이란 혁명 전후에 겪었던 무수한 고통과 힘겨운 투쟁을 들려주는 감동적이고 강렬한 여성소설이다. 그녀의 50년 세월을 담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많은 이란 여성들이 인권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 싸운 선구자들로 불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현대 이란의 역사를 그대로 투영해내는 이 소설은 이란 정부에 의해 두 번이나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으나,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4쇄를 찍은 이란 역사상 가장 인기 높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 자연식 해독 밥상

황미선 저 | 넥서스  
항암 음식의 화려한 변신



자신의 암을 극복하고 항암 요리 전문가가 된 저자가 체내 독소를 해독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먹거리로 차린 밥상을 담았다. 자연식으로 건강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요리들과 먹거리로 독자들에게 맛있는 입맛과 함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한다. 내용은 먼저 암을 이기는 자연 식품으로 약보다 더 몸에 좋은 자연 식품을 소개하고 샐러드/생채, 반찬, 한끼 식사, 국물요리, 저장식품, 차/음료까지. 선식부터 디저트 전반에 걸친 모든 자연식을 담았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berrius@yes24.co.id / www.yes24.co.id

## 2013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액	
					USD	IDR
1	한인회명예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2013	20,000	
2	한인회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3	20,000	
3	한인회수석부회장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3	10,000	
4	한인회부회장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2013	5,000	
5	한인회부회장	김영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3	5,000	
6	한인회부회장	김주철	PT. STAR CAMTEX	2013	5,000	
7	한인회부회장	김희년	PT. ETRADING SECURITIES	2013	5,000	
8	한인회부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3	5,000	
9	한인회부회장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2013	5,000	
10	한인회부회장	이지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3	5,000	
11	한인회부회장	이진수	PT. SUNG BO JAYA	2013	5,000	
12	한인회부회장	이호덕	PT. VICTOR JAYA RAYA	2013	5,000	
13	한인회부회장	조용우	외한은행	2013	5,000	
14	한인회부회장	최광수	PT. BIG STAR	2013	5,000	
15	한인회부회장	최상학	우리은행	2013	5,000	
16	한인회부회장	황의상	PT. INWHA INDONESIA	2013	5,000	
17	한인회자문위원	강덕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3	1,000	
18	한인회자문위원	김석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3	1,000	
19	한인회자문위원	김영만	PT. KOREA INDONESIA PETROLEUM CO.,LTD	2013	1,000	
20	한인회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2013	1,000	
21	한인회자문위원	김우재	PT. KOIN BUMI	2013	1,000	
22	한인회자문위원	박현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3	1,000	
23	한인회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NESIA	2013	1,000	
24	한인회자문위원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2013	1,000	
25	한인회자문위원	오세윤		2013	995	
26	한인회자문위원	엄석준	NEW-WORLD MEDICAL	2013		10,000,000
27	한인회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2013	1,000	
28	한인회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13	1,000	
29	한인회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2013		10,000,000
30	한인회자문위원	배상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2013	2,000	
31	한인회자문위원	장주현	PT. INKO PRIMA UTAMA JAYA	2013		10,000,000
32	한인회자문위원	정무웅	코린도장학재단	2013	958	
33	한인회자문위원	조용준	PT. TIGA BINTANG JAYA	2013		10,000,000
34	한인회자문위원	최정남	PT. GLOBAL FIBER INDO	2013	1,000	
35	한인회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2013	1,000	
36	한인회사사	강주석	PT. SERIM INDONESIA	2013	1,000	
37	한인회사사	구자성	일요신문	2013	1,000	
38	한인회사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2013	1,000	
39	한인회사사	김경국	PT. N E S	2013	1,000	
40	한인회사사	김달수	PT. KIDECO JAYA AGUNG	2013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액	
					USD	IDR
41	한인회이사	김도상	PT. HONGIK INDONESIA	2013	1,000	
42	한인회이사	김문호	PT. DADA INDONESIA	2013	1,000	
43	한인회이사	김문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3	1,000	
44	한인회이사	김상태	SMS GROUP	2013	1,000	
45	한인회이사	김성국	PT. PERTA SAMTAN GAS	2013	1,000	
46	한인회이사	김세형	PT. BTEXB INDONESIA	2013	1,000	
47	한인회이사	김종현	PT. KOIN BUMI	2013	1,000	
48	한인회이사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2013	1,000	
49	한인회이사	노승원	PT. SGWICUS INDONESIA	2013	1,000	
50	한인회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2013	1,000	
51	한인회이사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2013	1,000	
52	한인회이사	배정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2013	1,000	
53	한인회이사	서영을	PT. PRATAMA ABADI INDUSTRI	2013	1,000	
54	한인회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2013	1,000	
55	한인회이사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2013		10,000,000
56	한인회이사	안상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3	1,000	
57	한인회이사	안선근	U.I.N UNIVERSITY	2013	1,000	
58	한인회이사	안홍제	PT. KOLON INA	2013	1,000	
59	한인회이사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2013	1,000	
60	한인회이사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2013	1,000	
61	한인회이사	유주완	PT. FEEL BUY INDONESIA	2013	1,000	
62	한인회이사	윤석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3	1,000	
63	한인회이사	이상일	PT. U I B	2013	1,000	
64	한인회이사	이석태	PT. U F U	2013	1,000	
65	한인회이사	이종억	KOREAN AIR LINE	2013	1,000	
66	한인회이사	이종현	PT. LEO KORINSIA	2013		10,000,000
67	한인회이사	이주한	PT. MEDISON JAYA RAYA	2013	1,000	
68	한인회이사	이준하	PT. DAELIM INDONESIA	2013	1,000	
69	한인회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2013	1,000	
70	한인회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3	1,000	
71	한인회이사	임성용	PT. MIRINA NUSANTARA	2013	1,000	
72	한인회이사	임성필	PT. LSP INDONESIA	2013	1,000	
73	한인회이사	전민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3	1,000	
74	한인회이사	정주성	PT. DEASUNG HI-TECH	2013	1,000	
75	한인회이사	정철주	PT. DONG-IL INDONESIA	2013	1,000	
76	한인회이사	조호신	PT. SONERGY	2013	1,000	
77	한인회이사	차상만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2013	1,000	
78	한인회이사	현정규	PT. MEKAR SAMMI JAYA	2013	1,000	
79	한인회이사	홍기호	PT. AURORA INT'L CO.	2013	1,000	
80	한인회이사	황윤홍	자카르타경제일보	2013	1,000	
총 금액					\$173,953	Rp60,000,000

## 2013년 안인회 개인회비 납부 명단 (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 연도	금액 (Rp)
1	김영선	2013	300,000
2	승은호	2013	300,000
3	신기엽	2013	300,000
4	이인호	2013	300,000
5	김영환	2013 - 2017	1,500,000
6	김재민	2013	300,000
7	신충일	2013	300,000
8	홍문기	2013	300,000
9	홍석영	2013	300,000
10	조규철	2013	300,000
11	정무웅	2013	300,000
12	전영돈	2013	300,000
13	김문호	2013	300,000
14	김일영	2013	300,000
15	강덕재	2013	300,000
16	최양기	2013	300,000
17	황윤홍	2013	300,000
18	김문환	2013	300,000
19	황의상	2013	300,000
20	이완식	2013	300,000
21	임성용	2013	300,000
22	강희중	2013	300,000
23	장천수	2013	300,000
24	승범수	2013	300,000
25	최석일	2013	300,000
26	이현	2013 - 2017	1,500,000
27	박영규	2013	300,000
28	지동주	2013	300,000
29	한상재	2013	300,000
30	이병기	2013	300,000
31	엄중환	2013	300,000
총 금액			Rp 11,700,000

## 한인회 신임이사

(한인뉴스7월호 신임이사 명단에 이어)

번호	성명	회사명
18	신규태 	PT. Indo Sungil Jaya
19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외환은행 KEBI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 회원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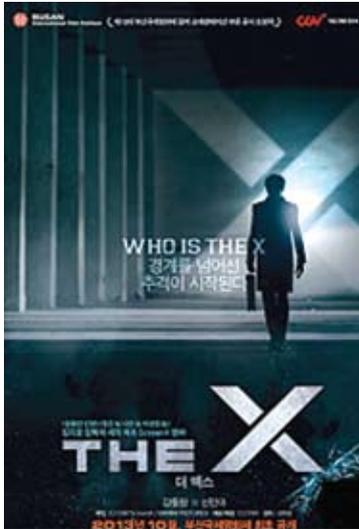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 안인외사무국 안국직원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 한인회사무국  
모집인원 : 1명 (인도네시아 국적자 우대)  
자격요건 : 남자20대-30대  
컴퓨터 능숙자 (홈페이지관리)  
인니어, 영어가능자

문의처 :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전 화 : (021) 521 2515  
E-Mail : yasko@indosat.net.id

# 11월의 영화 추천작



언제나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엘리트 요원 'X' 는 정체 불명의 물건을 요원 'R' 에게 전달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하지만 만나기로 했던 요원 'R' 은 시체로 발견되고, 옆방에서 밧줄에 묶

여 있는 여자친구 '미아' 를 발견하는데... 위기에 빠진 요원 'X' 는 위험에서 벗어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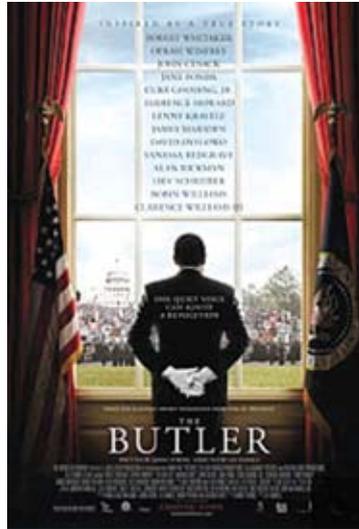
## 더 엑스

CJ CGV가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ScreenX (이하 '스크린 X') 기술로 촬영된 최초의 영화 <The X. 감독 김지운. 주연 강동원,



신민아(특별출연), 이숨>가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공식 초청되면서 10월 최초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기존 영화와 다르게 영화관객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ScreenX가 기존에 중앙 1면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관람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상영관 좌우 벽면까지 3면을 스크린화, 이야기의 공간은 확장시키고 감정의 몰입은 극대화시키는 상영 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미 박스오피스 3주 연속 1위! 올 가을, 당신의 마음을 사로 잡을 단 한 편의 감동 실화!

고향을 떠나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일하던 세실 케인즈(포레스트 휘태커)는 손님을 응대하던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이 백악관 관료의 눈에 띄어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된다. 1952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34년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8명의 대통령을 수행한 세실 케인즈. 흑인 꼬마에서 최고의 버틀러가 된 그를 통해 지금껏 아무도 몰랐던 백악관 사람들의 감동 실화가 펼쳐진다.

## 버틀러

'버틀러:대통령의 집사' 에 출연한 배우들은 화려함 자체다. '라스트 킹' '버드' 로 아카데미와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연기파 포레스트 휘태커가 주연을 맡았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해 로빈 윌리엄스, 앨런 릭맨, 존 쿠삭, 제인 폰다, 제임스 마스던 등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을 열연했다.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9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카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0291 59859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널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끌라빠가딩)	723 0807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찌까랑 공소)	7884 3782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건**

문의 **573-1576**

 **KMAQA**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챔피언**



**환전**  
송금업무  
높은환율

Tel: (021) 4585 1158  
HP: 0815 114 14 119  
주소: Ruko Inkopal Blok C No.75  
Kelapa Gading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온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JAKARTA BIZ DAILY**  
 Patra Jesa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I Jakarta Selatan - INDONESIA  
 Tel : +62-21 5290-0117 (Hunting) | Fax : +62-21 5290-0229  
 E-mail : news@jktbizdaily.com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어 경제일간지

**자카르타경제일보**

구독문의 (021) 5290 0118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精과誠과 德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Kav.56, Jakarta 12950  
 15th Floor Suite 1503  
 Tel. 62-21-2941-0780 (hunting) Fax. 62-21-2941-0775  
 E-mail: doowang@ctbn.net.id, doowangjkt@gmail.com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무항생제, 무화학약품, 순수곡물사료  
 닭을 행복하게 하는 양계법  
 최고의 닭고기 CharmChick

**Charm Chick**  
 Nature's Choice

같이보여도 속부터 겉까지 다른 Quality  
 참치는 참닭, 진짜닭입니다

Sucofindo의 무대장관, 무실모래라 인증  
 인니 농축산부의 무항생제 인증  
 자카르타 주정부의 1등급 품질인증

판매처 **무궁화, K-마트,  
 뉴서울슈퍼, 한일마트**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KJ 건축·인테리어

- 1. 사무실전문 인테리어공사
- 2.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 3. 레스토랑 인테리어공사

Tel : 021-7590-6767

HP : 0821-2564-1777

E-mail : choimg21@gmail.com

주소 : FATMAWATI LOTTE MART

RUKO BLOK G/0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안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	-----------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건설팅

글로벌건설팅	7280 0524
누비라건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건설팅	520 7153
새천년건설팅	5290 0040
우리건설팅	7918 4239
건설팅 21	799 6182
퓨릭건설팅	5596 3213
한생건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고향집 하숙	83701492/081511597510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썬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이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항공

대한항공(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AVENUE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30년의 선물

##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독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말리안탄 Pit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 KORINDO P1ants the Green



##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